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학위논문

소셜미디어에 서술되는  
장소 재정의 과정에 대한 연구  
- ‘온라인집들이’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전용사례를 중심으로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허 은 석

소셜미디어에 서술되는  
장소 재정의 과정에 대한 연구  
- ‘온라인집들이’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전용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항 만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허 은 석

허은석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8 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

국문초록

# 소셜미디어에 서술되는 장소 재정의 과정에 대한 연구

## - ‘온라인집들이’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전용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항 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허 은 석

---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적 공간인 주거를 타인에게 공개하고 주거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오늘의 집’의 ‘온라인집들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주거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 주거에 얹힌 거주자의 구체적인 생각과 사용실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소를 물리적 공간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와 역할로 정의하고, 온라인집들이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공간의 전용사례를 주거 내 장소의 재정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타나는 건축을 대하는 인간의 변화한 태도는 융합미디어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했을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서술되는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의 개념을 바탕

으로 하고 있음을 온라인집들이의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상행위와 관련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장소의 정의를 새롭게 재정의한다. 온라인집들이의 서사구조는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 현 주거 환경,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집들이의 서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 개념과 대응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의 장소 재정의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장소 개념의 전반에 걸쳐 재정의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재정의 방식은 새로운 프로그램, 실의 맞춤형화, 교차와 통합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때 각각은 주거의 역할, 공간의 의미, 물리적 구성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장소를 정의하는 모든 요소가 재정의의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주거를 재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주거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해당하는 사적 영역, 생활을 위한 공간, 재생산의 공간 등의 전재를 부정한다. 공적 경험과 공적 시선을 주거 내부로 끌어들이므로써 주거가 가지는 공적, 사적 위계를 없애거나, 거주자보다 특정 사물들을 우선으로 주거를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이 주거의 주된 기능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의 맞춤형화를 통해 기존의 주거 내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부정하고 각 공간을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춰 재정의 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주거 내 물리적 구성을 부정하고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기도 한다. 각 공간에 주어진 정의를 부정하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크기와 형태의 공간에 맞게 재정의한다.

온라인집들이의 장소 재정의 서사가 담긴 게시물은 댓글, 스크랩, 공유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 이때 주거는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지식의 형태로 정보를 공유한다. 댓글은 그 내용에 따라 독

자의 감상, 정보요구, 조언과 저자의 답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언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독자의 정보요구와 저자의 답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집들이에서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은 저자에서 독자로의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저자는 이후 온라인집들이에서 이전 온라인집들이에서 받은 댓글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집들이 본문을 통해 하기는 했지만, 댓글의 조언이 적은 만큼 댓글로부터 받은 영향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신, 다른 사용자의 온라인집들을 스크랩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온라인집들을 작성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타 소셜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제공,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사진, 텍스트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데이터는 아니다. 하지만 무질서해보이는 데이터를 관통하는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거를 대하는 거주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표본이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대변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주거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소셜미디어, 융합미디어, 아파트, 장소, 전용, 사용실태

**학 번 :** 2017-29868

# 목 차

##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흐름	8

## 제 2장. 이론적 배경

2.1.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인간의 사회적 특성	9
2.1.1. 융합미디어의 정의와 특성	9
2.1.2. 융합미디어에 의한 장소성의 해체와 재구성	17
2.1.3. 융합미디어를 통한 개인적 지식의 형성	19
2.2. 일상의 공간으로써 주거와 주거 내 장소성	21
2.2.1. 일상의 공간으로써 주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 선행 연구	21
2.2.3. 아파트에서의 축소된 일상과 일반화된 장소성	25

## 제 3장. 연구의 절차

3.1. 연구 문제	28
3.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2
3.3. 연구 방법	36

## 제 4장. 온라인집들이 장소 재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한 장소 개념

4.1. 온라인집들이 본문의 서사구성요소 분석	40
4.1.1. 가꾸기 이전의 인식	41
4.1.2. 현 주거 환경	44
4.1.3.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47
4.2.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성요소 간의 관계 분석	53
4.3. 소결	57

## 제 5장. 온라인집들이 장소 재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정의 방식과 범위

5.1. 주거의 역할을 재정의 : 새로운 프로그램	64
5.1.1. 공적경험 : 홈카페, 홈바, 홈캠핑, 홈PC방	65
5.1.2. 주객전도 : 갤러리, 전시공간	74
5.1.3. 직주통합 : 작업실, 집무공간	77
5.2. 주거 내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 : 실의 맞춤형	79
5.2.1. 침실	79
5.2.2. 거실	83
5.2.3. 식당, 주방	89
5.3. 주거의 물리적 구성을 재정의 : 교차와 통합	93
5.3.1. 방과 거실의 교차 혹은 통합	94
5.3.2. 식당과 거실의 교차 혹은 통합	95
5.4. 소결	100

## 제 6장. 주거를 통한 개인적 지식의 형성과 공유

6.1. 온라인집들이 댓글을 통한 정보의 공유방식 분석	104
6.2. 온라인집들이를 통한 정보의 축적과 개인적 지식의 형성	110
6.3. 소결	116

## 제 7장. 결론

## 제 8장. 참고문헌



## 〈표 차례〉

〈표 1〉 미디어의 구조적 특성 비교	13
〈표 2〉 아파트 거주자의 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25
〈표 3〉 아파트 내 각 공간들의 일반적인 계획 및 사용 경향	27
〈표 4〉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의 구성	33
〈표 5〉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성요소 카테고리 설정 과정	37
〈표 6〉 온라인 집들이에서 수정 전, 후를 비교하는 서술 방식의 예	47
〈표 7〉 온라인집들이 사례별 주요 공간 재정의와 관련된 서사구성요소 추출	54
〈표 8〉 온라인집들이 사례별 공간 재정의 방식의 분류	60
〈표 9〉 온라인집들이 사례별 공간 재구성 방식의 분류	96
〈표 10〉 온라인집들이 댓글을 통한 정보의 공유방식 분류	106
〈표 11〉 서로 다른 시점의 두 온라인집들이 비교	112

## 〈그림 차례〉

〈그림 1〉 #집스타그램의 사례	2
〈그림 2〉 연구 흐름도	8
〈그림 3〉 온라인집들이의 기초정보	33
〈그림 4〉 온라인집들이의 본문	34
〈그림 5〉 온라인집들이의 댓글	34
〈그림 6〉 온라인집들이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의 수정 전 사진	47
〈그림 7〉 온라인집들이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의 수정 후 사진	47
〈그림 8〉 온라인집들이의 서사구조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의 개념 비교	58
〈그림 9〉 홈카페의 사례 (7722)	67
〈그림 10〉 포토존의 사례 (10041)	69
〈그림 11〉 홈캠핑의 사례 (2567)	72
〈그림 12〉 전시공간의 사례 (1706)	76
〈그림 13〉 작업공간의 사례	78
〈그림 14〉 열린 침실의 사례 (2997)	81
〈그림 15〉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란의 거실 (2737)	85
〈그림 16〉 다목적의 거실 (9402)	87
〈그림 17〉 미니멀한 거실의 사례 (3079)	89
〈그림 18〉 분리된 주방의 사례 (3188)	91
〈그림 19〉 연계된 주방의 사례 (10124)	93
〈그림 20〉 온라인집들이가 재정의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 개념의 범위와 재정의 방식	102
〈그림 21〉 ‘로라민주’의 스크랩 보드	115
〈그림 22〉 온라인집들이 게시자와 다른 온라인집들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	117
〈그림 23〉 온라인집들이에 나타난 장소 재정의 과정	123

# 제 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종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해서 타인과 연결되어있는 상태이며,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고 있다. 일상 속에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나의 일상을 타인들과 공유하거나 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건축을 대하는 사람들의 변화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타인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배경이 되는 공간들이 노출되거나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 예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집스타그램, #방스타그램 등을 들 수 있는데,<sup>1)</sup> 이는 과거에는 사적 공간으로 여겨지던 주거공간을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에게 드러낸다. #집스타그램은 기존의 주거가 가지고 있던 공적, 사적 위계와 상관없이 거실부터 침실,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을 소재로 하며,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주거가 가진 공간적 위계가 주거의 외부에서 거실과 같은

---

1) instagram은 텍스트 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중심으로 감성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이다. 특히, 팔로우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친분이 없는 사람과도 자유롭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해시태그(hashtag) 기능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윤석주, 2016) 이는 특정 관심사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감성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집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집스타그램/>) #방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explore/tags/방스타그램/>)과 같이 주거와 관련된 새로운 관심사의 영역을 형성하였다.

반공적공간을 거쳐 침실과 같은 사적공간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던 것을 무시하고 집안 어디에서나 균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가지는 높은 이동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도에 따라 공간의 물리적 심도와 상관 없이 어느 공간이든 공적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기에 가능하다.<sup>3)</sup>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주거를 공개하는 사례 외에도 페이스북과 각종 블로그,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신의 주거를 글, 텍스트,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해 타인에게 공개한다.



<그림 1> #집스타그램의 사례  
(인스타그램 계정 miniaryong  
(<https://www.instagram.com/miniaryong/>))

- 
- 2) 이경원, 공(公), 사(私), 공(共) 패러다임,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8, p.15-21  
3) 강재원, 융합미디어와 사적私的) · 공적公的) 영역의 변형: 새로운 중간영역의 부상(浮上)과 그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IT서비스 학회지, 2013, p.135-136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거의 공개는 단순히 공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댓글과 좋아요 등의 방식을 통한 타인과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댓글과 좋아요 등의 방식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의 주거를 수정하기도 한다. 주거와 관련하여 개인이 터득한 지식, 제품에 관한 후기, 유행과 스타일 등이 축적되어 영향력을 가지기도 한다. 타인의 게시물, 제품정보, 이미지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스크랩하여 정보를 재조합하기도 하는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주거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는 다양한 주거의 모습과 주거에 대한 거주자와 타인의 생각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적 공간의 이용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주거가 거주자에 의해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성되는지, 주거가 거주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거를 둘러싼 사람들 간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거에 대한 거주자의 새로운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중에서 인테리어 정보 플랫폼 ‘오늘의 집’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형식의 소셜미디어 ‘온라인집들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sup>4)</sup> 온라인집들이는 자신의 주거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서부터 작은 소품에 이르기까지 공간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각 공간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결정과 그로부터 얻은 정보와 생각을 공유한다. 온라인집들이는 현관부터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까지 거의 모든 공간을 하나의 서사로 풀어내어, 분절된 이미지와 텍스트로 주거를 묘사하는 타 소셜미디어에 비해 주거에 얹힌 전반적인 생각과 각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더 적절하다.

---

4) ‘온라인집들이’는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https://ohou.se/projects>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은 대부분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주거공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전과 수정 후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온라인집들이의 아파트 전용 사례에서는 거실, 침실, 주방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각 공간의 특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정의하기도 한다. 거실을 카페, 갤러리, 캠핑장 등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거실을 침실로, 침실을 거실로 주어진 공간의 역할을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에 통용되는 주거 내 공간들의 의미와 역할을 부정하고 개인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재정의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sup>5)</sup>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드러나는 주거 내 장소성의 해체와 재구성에 주목하였다. 물리적 공간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장소라고 하였을 때,<sup>6)</sup> 주거공간에 부여된 기존의 의미와 역할을 부정하고 이를 재정의하는 과정은 주거공간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장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거 내 공간들이 가진 기존의 의미와 역할을 부정하고 개인의 의도에 따라 새롭게 정의하는 현상은, 건축가의 설계에 따라 사용자가 건축을 사용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사회학 분야에서는 현대 사회의 변화한 장소 개념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

5) 인스타그램의 경우, 해시태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간에 자유롭게 공유되지만, 텍스트나 정보보다는 이미지와 감성을 중심으로 한다. 페이스북의 경우, ‘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자세한 정보를 담벼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페이지의 운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게시되는 정보만을 제공받는다. 블로그의 경우, 개인의 주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유되지만 검색을 통해 접근하거나 이웃을 맺은 사람들 간에만 정보가 공유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6)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2018), 장소감의 상실, 커뮤니케이션 북스, 1986

연구들은 미디어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전통 사회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 사이의 관계 변화에 주목한다. 인쇄미디어 이전의 사회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 사이의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했던 반면, 전자미디어의 등장으로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 사이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현대사회와 같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sup>7)</sup>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분리된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 사이의 관계, 즉 장소는 개인에 의해 재정의된다.

이때 융합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네트워크, 기기가 융합되는 미디어를 의미하며, 소셜미디어는 대표적인 융합미디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주거와 관련된 현상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의 개념이 반영되어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학 연구는 거주자가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인간의 사회적 특성 중 지식 개념의 변화 또한 온라인집들이를 통해 주거를 공개하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주목할 만 하다. 융합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재가공하고 분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문가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식’ 만큼이나 개인에 의해 생산된 ‘개인적 지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sup>8)</sup> 특히 신체와 관련된 (의, 식, 주와 같은) 지식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식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위상을 가지게 된다.<sup>9)</sup> 주거는 개인의 일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간의 신체와 밀접한 관

7) 강재원, 융합미디어와 사적私的) · 공적公的) 영역의 변형: 새로운 중간영역의 부상(浮上)과 그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IT서비스 학회지, 2013, p.130-132

8) 피에르 레비, 권수경 역(2002), 집단지성, 1997

9) 강보라, 일상과 미디어, 그리고 개인적 지식의 구성 : 먹거리에 관한 2-30대 여성들의 개인적 지식 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5, p.33-36

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주거를 개인이 필요에 따라 정의하고 그에 맞게 구성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습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넘어서, 개인적 지식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현상이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된 장소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집들이의 텍스트와 사진 등의 질적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질적자료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발견함으로써 온라인집들이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될 수 있는 주거 내 장소의 재정의 과정의 특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것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현대사회의 변화된 장소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장소 재정의 과정의 원인 및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주거 내 장소의 재정의 과정을 유형화함으로써 재정의의 의도와 이것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방식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라인집들이에서 드러나는 주거에 대한 새로운 거주자의 태도와 요구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재정의 과정은 의미적 측면에서 장소를 재정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일상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온라인집들이에서 서술되는 재정의 과정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재정의의 의도가 제시되고, 인테리어 시공, 기성제품을 조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물리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주거 내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공유되는 현상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지식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자한다. 온라인집들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주거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함이다. 온라인집들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용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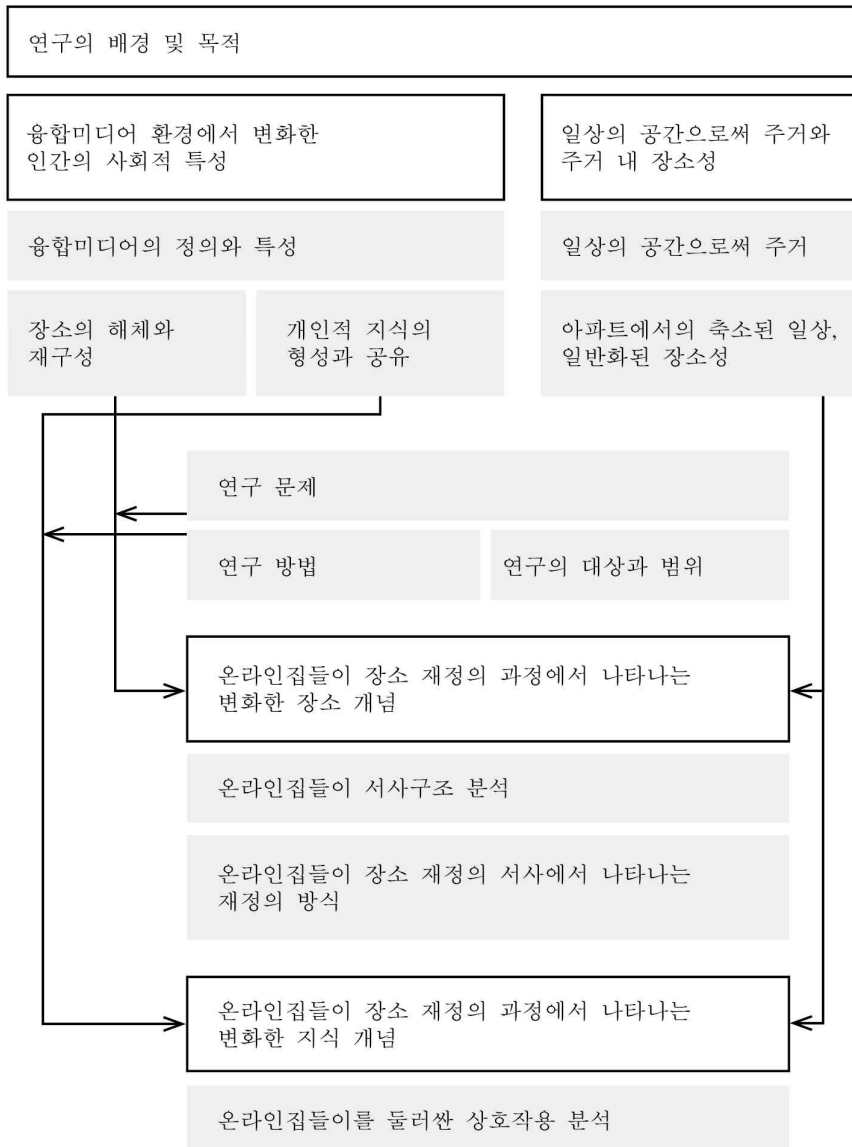
10) 김정숙, 현대건축에 나타난 일상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12, 손세관,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0



간의 상호작용으로는 온라인집들이에 대한 타인들의 댓글, 글쓴이가 스크랩한 타인의 게시물, 그리고 외부의 다른 소셜미디어 등이 있다. 댓글을 통한 정보의 교류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집들이를 통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사용자가 서로 다른 시점에 작성한 게시물을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개인적 경험의 축적이 개인적 지식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정보가 개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1.2. 연구의 흐름

소셜미디어에 서술되는 장소 재정의 과정에 대한 연구 :  
온라인집들이에 드러난 아파트 공간의 전용사례를 중심으로



## 제 2장. 이론적 배경

### 2.1.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인간의 사회적 특성

미디어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sup>11)</sup> 혹은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객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 등으로 정의한다.<sup>12)</sup> 맥루한은 미디어가 인간의 확장으로써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와 행동의 척도를 만들어내고 제어한다고 주장했다.<sup>13)</sup> 그리고 미디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 관계를 재구조화 하고, 또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을 변화시켜 사회적 질서의 논리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sup>14)</sup>

#### 2.1.1. 융합미디어의 정의와 특성

융합미디어(Convergence of media)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sup>15)</sup> 이때의 융합은 여러 차원에 걸쳐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디지털, 아날로그 혹은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의 정보가 융합되거나,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가 융합되거나, 컴퓨터, 모바일 기

---

11) 윤승은, 정보통신용어사전, 일진사, 1994

12) 테니스 맥퀘일, 양승찬 외 역(2002),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 1990

13) 마샬 맥루한, 박정규 역 (1999), 미디어의 이해, 1994

14) 레브 마노비치, 서정신 역 (2004), 뉴미디어의 언어, 생각의 나무, 2002, 남기범, 컨버전스로 인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 변화, 한국통신정책연구원, 2008, p.35

15) 강재원, 융합미디어와 사적私的) · 공적公的) 영역의 변형: 새로운 중간영역의 부상(浮上)과 그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IT서비스 학회지, 2013, p.130-132

기, 가전 등의 기기가 융합되는 것을 포함한다.<sup>16)</sup> 우리가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융합미디어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는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의 모든 형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모바일 기기이지만 컴퓨터와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또한 대표적인 융합미디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지와 텍스트,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융합되고, 모바일과 컴퓨터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융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집들이라는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사용자들의 행위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인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대의 미디어 형태에서부터 융합미디어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위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타인, 사회적 이슈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sup>17)</sup> 미디어가 발달하는 과정은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점점 더 개인의 일상 경험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접근성이 높아진 것 이상으로, 과거에는 서로 다른 영역 사이에 절대적으로 존재하였던 위계, 신비감, 암묵적 규칙이 서서히 해체된 것이라 주장한다.<sup>18)</sup>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 의해 주어지던 정보와 사회적 위계를 부정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위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한다.<sup>19)</sup>

---

16) *ibid*, p.130-132

17) 마뉴엘 카스텔, 박행웅 역(2009), *네트워크 사회*, 한울, 2003, p.309-312

18)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2018), *장소감의 상실*, 커뮤니케이션 북스, 1986, p.778-780

19) *ibid*, p.785

본 연구가 주목한,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주거공간을 공개하는 행위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가 발달하기 이전에 건축, 혹은 주거공간에 관한 논의는 특정 계층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여성동아’, ‘주부생활’과 같은 여성지와 ‘행복이 가득한 집’과 같은 생활문화지, 신문을 통해 주거공간에 관한 논의가 이를 구독하는 일부 대중들에게 확산되었다.<sup>20)</sup> 그리고 과거 ‘러브 하우스’나, 최근 ‘내방의 품격’, ‘헌집줄게, 새집다오’와 같은 방송을 통해 다수의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하지만 잡지와 방송은 소수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정보가 대중에게 하달되는 형태인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수의 대중이 정보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재생산한다.<sup>22)</sup> 자신의 집을 가꾸면서 알게 된 ‘꿀팁’(유용한 요령)을 사람들과 나누거나 가구, 소품 등을 사용해보고 제품의 구매 정보나 사용 후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교류는 소셜미디어 상에 축적되어 영향력을 가지는 정보가 되기도 한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책, 잡지, 방송, 소셜미디어와 같이 인쇄, 전자, 융합 미디어의 발달과정에 따라 미디어와 함께 변화한 인간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미디어는 인쇄미디어부터 전자미디어를 거쳐 융합미디어로 발전해왔다. 인쇄미디어는 문자와 그림 등으로 이루어진 아날로그 미디어로 신문과

20) 김향아, 젠더 개념을 통해 본 잡지에 게재된 주거공간의 특성과 변화 : 1980년대 이후 2003년까지 게재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5, p.22-24, 66-69

21) 러브하우스의 경우 건축의 프로세스를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켰다고 평가된다.(천의영, 2002) 최근 방영된 ‘내방의 품격’(tvN, 2015-2016), 헌집줄게, 새집다오(JTBC, 2015-2016)의 경우, 셀프인테리어를 통해 대중들이 직접 자신의 공간을 다룰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22) 69.3%의 소비자가 광고나 제품 설명보다 소비자의 후기에 신뢰를 가진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61.8%는 상품평과 방향이 다르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찾아보고 결정한 판단을 더 신뢰한다고 답하였다.(강태영 외, 2015, 정효진 외, 2014)

책 등을 포함한다.(〈표 1〉 참조) 인쇄미디어는 종이에 인쇄되어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개인이 손에 들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 형식의 미디어라 할 수 있다. 타인들과 인쇄미디어를 공유하면서 읽기 보다는 조용한 사적 공간에 인쇄미디어를 가지고 가서 정보를 습득한 후 공적인 자리에서 논하는 형태로 공론이 이루어졌다.<sup>23)</sup>

인쇄미디어는 문자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의 지식인에 의해 생산된 인쇄미디어가 종이와 같은 물리적 매개를 통해 느린 속도로 장기간에 걸쳐 전달되었다. 인쇄미디어는 정보의 총 양은 많지만 각각의 정보는 희소하고 일방향적으로 하달되기 때문에 인쇄미디어를 통해 주어진 정보는 독자들에게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sup>24)</sup> 인쇄미디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하던 시대에는 정보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했으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체로 사회적 권위를 가졌다.<sup>25)</sup>

---

23)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2018), 장소감의 상실, 커뮤니케이션 북스, 1986, p. 211-220

24) 강재원, 융합미디어와 사적私的) · 공적公的) 영역의 변형: 새로운 중간영역의 부상(浮上)과 그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IT서비스 학회지, 2013, p. 134-136

25) 조슈아 메이로위츠, op. cit, p. 142-145

〈표 1〉 미디어의 구조적 특성 비교

	인쇄미디어	전자미디어	융합미디어
정보 전달 방식	사적 형식, 진입장벽 존재	공적 형식, 진입장벽 해체	사적 형식, 진입장벽 해체
정보의 형태	순차적, 선형적	동시적, 비선형적	동시적, 비선형적
가용성과 접근성	낮음	중간	높음
정보 유통 속도 / 양	속도 느림, 양 많음	속도 빠름, 양 적음	속도 빠름, 양 많음
정보 흐름의 방향	1:N 일방향	1:N 일방향	1:1, 1:N 양방향

이동후(2006), 강재원(2013), 메이로위츠(2018)를 바탕으로 재구성<sup>26)</sup>

반면 전자미디어는 영상과 소리 등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미디어로 TV와 라디오 등을 포함한다. 전자미디어는 방송국과 같은 소수의 발신자가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파를 송신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한다. 전자미디어는 라디오와 같이 기기의 소리가 퍼져나가거나 TV와 같이 화면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이때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는 이미지와 소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계층과 나이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전자미디어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아도 그 근처에만 있으면 전달되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명이 동시에 전자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sup>27)</sup> 따라서 전자미디어 환경에서는 거실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거나 술집, 카페에서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며 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등의 공론이 이루어졌다.

전자미디어는 정보의 총 양은 적지만 물리적 제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26) 이동후, 인터넷의 공간과 시간 : 미디어 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2006; 강재원, 융합미디어와 사적(私的)·공적(公的) 영역의 변형, 2013;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2018), 장소감의 상실, 커뮤니케이션 북스, 1986 을 바탕으로 재구성

27)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2018), 장소감의 상실, 커뮤니케이션 북스, 1986, p. 221-220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었으며, 이는 과거에 전달되었던 정보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sup>28)</sup> 전자미디어의 정보는 정치, 사회의 공적인 내용부터 개인의 감정과 사생활과 같은 사적인 내용을 모두 공적인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사적인 연애 감정을 연기하는 배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유명인의 사생활이 폭로되고 이것을 접하는 경험을 통해,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절대적인 위계, 암묵적 규칙이 해체되기 시작한다.<sup>29)</sup>

융합미디어의 경우 인쇄미디어가 가진 특성과 전자미디어가 가진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융합미디어는 개인화되고 신체와 결합되는 경향에 의해 개인이 손에 들고 읽는 인쇄미디어처럼 사적인 형식을 가진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지와 영상, 가벼운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다른 미디어 기기들과 연결함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나누거나, 자신이 접한 정보를 타인과 즉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sup>30)</sup>

이러한 융합미디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인간은 이전 미디어와는 다른 사회적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으로는 첫째, 사람과 사물, 정보의 경계가 사라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있다. 이는 전자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연계하는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융합미디어 기기가 신체와 결합되는 기술,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융합미디어 기기의 존재감을 없애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기술 등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sup>31)</sup> 전자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연계를 통해 융

---

28) 엔소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1991, 1997, p.87-95

29)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2018), 장소감의 상실, 커뮤니케이션 북스, 1986, p. 778-780

30) 강재원, 융합미디어와 사적私的) · 공적公的) 영역의 변형: 새로운 중간영역의 부상(浮上)과 그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IT서비스 학회지, 2013, p.128-130



합미디어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 처럼 미디어 자체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일상 속에 체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sup>32)</sup>

둘째,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보를 얻고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특정한 상황에 있어야 했다.<sup>33)</sup> 하지만 융합미디어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똑같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음성, 영상, 텍스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전자미디어 환경에서도 가능하였지만, 융합미디어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지게 한다. 전자미디어에서 송출된 전파는 한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용할 수 없다. 반면 융합미디어의 경우 네트워크 상에 정보가 업로드되고,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트워크 상의 정보는 축적되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sup>34)</sup>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은 전통적인 장소의 개념이 해체되고 개인이 주관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sup>35)</sup>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셋째,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는 개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재가공하고, 재분배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면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정

---

31) 하원규 외,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융합,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p. 25-27

32) 강재원, op. cit, p. 140

33) 예를들어, 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광장에 나가거나 시간과 만날 장소를 정해야 했으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능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야 했다.

34) 최병두, 지식정보시대와 공간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p.84

35) 이는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보가 경향성을 가지게 되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융합미디어는 일상 생활 속에 스며들어 지식의 범위를 확장시킨다.<sup>36)</sup> 전문가에 의해 주어진 정보만큼이나 개인에 의해 형성된 지식이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의, 식, 주와 같은 지식들은 한명의 전문가에 의해 하달되는 형태의 지식보다는 여러 개인이 직접 경험해서 얻은 체화된 지식의 형태가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sup>37)</sup> 이는 개인적 지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주거공간을 변형하는 행위는 온라인집들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에 의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셀프 인테리어’, ‘DIY’ 등의 단어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개인이 직접 주거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와의 조율 없이 거주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재정의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거주자가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현상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장소의 해체와 이것이 개인에 의해 재정의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장소는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소와 관련되어 변화한 인간의 태도는 건축에

---

36) 노명우, 네트워크 미디어 시대의 ‘대중 지식인’ 과 지적 대중의 결합체, 2012

37) 강보라, 일상과 미디어, 그리고 개인적 지식의 구성 : 먹거리에 관한 2-30대 여성들의 개인적 지식 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5, 의, 식, 주는 신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에 따라 같은 제품을 대하였을 때에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 주어진 지식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대신에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비교하여 자신과 가장 비슷한 경험을 가진 타인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코스메틱, 음식, 옷 등에 있어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준 전문가의 후기, 정보가 더 신뢰도를 가지는 이유이다.

대한 태도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적 지식에 주목하였다. 개인적 지식은 신체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주거는 개인의 일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간의 신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축적과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주거와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2.1.2. 융합미디어에 의한 장소성의 해체와 재구성

메이로위츠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장소의 정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sup>38)</sup> 인쇄미디어의 경우 물리적 공간에 고정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전자미디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게 되면서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의 관계가 약화되고,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는 개인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의 결합을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가 발달함에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주어진 사회적 의미, 위계로서 장소가 점차 사라지고, 개인이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기든스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시공간의 원격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시공간의 원격화란 사회 체계가 시공간 상에 전개되고 확장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근대 이전에는 일상생활의 장소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연계시켰으나,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가 확장된 사회체계를 갖춘 근대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장소에 고정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39)</sup> 국지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한 지식이 근대 이후에 등장한 ‘전문가 시스템’과 ‘상징적

---

38)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2018), 장소감의 상실, 커뮤니케이션 북스, 1986, p.761-763

39)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 역(2007),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9, p. 58-66

표상'을 통해 더욱 확장된 범위에서 교환되고 연계된다. 전문가 시스템은 모든 자연적, 사회적 현상을 서구 합리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이며, 언제든지 새로운 전문가의 주장에 의해 기존의 지식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sup>40)</sup>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 모든 자연적, 사회적 현상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준적인 가치로 분해되어 설명되는데 이를 상징적 표상이라 한다. 이러한 일반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국지적 일상과 장소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은 상실되고, 일상적 삶이 훨씬 더 확장된 시공간의 범위에서 교환되고 연계된다. 이를 통해 지식이 특정 계층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한 지식이 해석되고 운영된다. 기든스는 융합미디어 환경처럼 시공간의 원격화가 심화된 고도의 현대에서는 먼 곳의 사건이 자아의 내밀함에 영향을 주는 일이 일상화 된다고 주장한다.<sup>41)</sup>

카스텔은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미디어를 통해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상호작용의 본질은 정보의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장소에 따른 사회적 의미가 상실되고, 정보의 흐름 속에서 의미가 개인의 욕망에 따라 주관적으로 재구성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흐름의 공간에서 장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통신과 수송 시스템에 의해 공간이 새롭게 연계되고 장소를 형성한다고 했다. 특히 통신과 수송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장소의 형성은 일상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그 예가 주거와 업무기능 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전자 공간이 기존의 도시 공간 위에 겹쳐짐으로써 어떤 공간도 기존의 장소성을 유지하지 못하며, 개인의 업무 공간으로, 혹은 개인의 사교 공간 등으로 수정되게 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인들은 필요에 따라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연계되어 집단을 형성하는 동

40) 남기범, 앤서니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시공간론,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국토연구원, 2005, p.466

41) 앤서니 기든스, 권기돈 역(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1, p.87-95

시에 통제되지 않은 다른 집단과는 쉽게 단절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이웃한 공간보다 멀리 떨어진 공간과 더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42)</sup>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인간의 특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서 장소 개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등장으로, 장소에 고정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장소로부터 분리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시간은 사건,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융합미디어 환경의 개인은 장소를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기존에 주어진 장소성을 따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장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재구성의 과정을 (1) 개인이 주체가 되어 (2) 일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3)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집들이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의 재정의가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의 개념과 관련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을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이 변화한 장소의 개념이 반영되어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2.1.3. 융합미디어를 통한 개인적 지식의 형성

원용진은 매체기술의 발달을 통해 지식의 형태가 바뀌고 지식체계 내의 권력구조가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지식의 복제와 확산이 용이해짐에 따라, 지식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불분명해진 것이다.<sup>43)</sup>

---

42) 마뉴엘 카스텔, 박행웅 역(2004), 인터넷 갤럭시, 한울아카데미, 2001, p.251

43) 원용진, 매체와 지식세계, 문화과학 48호, 2009,

레비는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지식이 전문가라는 특권층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격임을 인정한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다른 개인들이 양산해내는 지식도 전문적 지식인들이 생산한 지식과 동등한 선상에서 ‘실재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sup>44)</sup> 이때 지식은 정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정보는 객관적 사실의 최소단위라면, 지식은 개인이 습득하여 주체화한 형태를 의미한다.

일상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지식과 사회적 지식이 접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복합적인 의미를 생산한다. 특히 개인의 몸과 관련된 지식(의, 식, 주)의 경우, 개인적 지식은 사회적 지식과 조응하는 동시에 개인적 경험에 따라 체화된 지식을 만든다. 일상에서의 개인적 지식은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종류의 지식들과 달리 실제적인 쓸모가 있는지가 중요해진다.<sup>45)</sup> 강보라의 경우 먹거리에 관한 개인적 지식의 구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대중적 지식생산자’로써 통합 - 교섭 - 전유의 과정의 과정을 통해 개인이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지식의 주체로 등장했음을 확인하였다.<sup>46)</sup>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융합미디어의 등장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지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신체와 관련된 지식(의, 식, 주)의 경우 일상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체화된 지식의 형태로 공유되어, 개인이 지식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서 위상을 가지게 된다.

44) 피에르 레비, 권수경 역(2002), 집단지성, 1997, 강진수, 블로그와 트위터 이용자의 소셜 미디어 출판에 대한 연구 - 피에르 레비(Pierre Levy)의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1

45) 마동훈,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생산 패러다임, 한국언론학회, 2011

46) 강보라, 일상과 미디어, 그리고 개인적 지식의 구성 : 먹거리에 관한 2-30대 여성들의 개인적 지식 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5, p.38

## 2.2. 일상의 공간으로써 주거와 주거 내 장소성

### 2.2.1. 일상의 공간으로써 주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 선행연구

주거는 인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다.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주거공간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주거는 인간 개인의 내면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 보호와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존중 및 실현의 욕구가 반영되는 공간이다. 동시에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을 매개하는데, 인간과 자연, 가족, 이웃, 지역 등과의 관계를 형성한다.<sup>47)</sup> 주거는 단순한 은신처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제도로써 특정 공간의 사회적 단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주거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생활양식과 거주자가 속한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으며, 이와 대응될 때 주거의 의미가 형성된다.<sup>48)</sup>

주거는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생활양식은 사회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며 일상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은 누구나 영위하는 생활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더욱이 부적합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일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미세한 작용들이 사회전체에 걸쳐 축적되어 일어나는 결과이다.<sup>49)</sup> 특수한 ‘사건’이 표면이자 상부구조라고 한다면, ‘일상’은 저변이고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행위에 주목함으로써 이것의 저변에 깔린 사회현상을 조명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낸다.<sup>50)</sup>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들

47) Newmark N, 김태연 역(1999), 인간, 공간, 주거, 수학사, 1977

48) Rapoport A, 이규복 역(1995), 주거의 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49) 일상성, 일상생활 연구회,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8, p.

의 일상'은 주거를 둘러싼 사회, 문화, 경제적 영향들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건축가가 설계한 주거의 특수한 '사건'들을 통해서 주거와 인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영위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에 주목하여 주거와 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서 선행연구들은 계획 이후에 일어나는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일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대신 '거주자의 이용행태', '공간 사용 특성'과 같은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는 일상행위 그 자체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기보다는, 거주자의 행위를 계획의 결과로써 받아들이고 기존의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써 일상행위를 연구한다. 따라서 거주자의 일상행위나 주거와 관련된 생각 자체보다는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주거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이용행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아파트 거주자의 이용행태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채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 내에서 거주자가 답변을 선택하기 때문에 답변의 다양성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백지원(2000)의 경우, 아파트의 공간계획 의도를 자료를 통해 파악한 후, 거주자들의 이용행태 및 요구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는 가족 단란에 공간의 전반적인 주안점을 둔 반면, 실제 거주자의 경우 개인공간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존재함을 확인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설문조사의 방식을 취하였기에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상행위를 개인생활, 공동생활로 분류된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결론에서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을 비교해 개인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다는 단순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강순주(2003)의 경우, 문헌을 통해 전통적 부엌과 현대적 부엌의

---

50) ibid, p. 26-27



차이를 파악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부엌의 이용행태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대의 부엌은 취사, 물건 보관, 세탁, 개인생활, 가족단란, 접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부엌과 차이를 가짐을 확인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 또한 설문조사의 방식을 취하였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거주자의 생활방식과 맞물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파악하지는 않았다.

한편 선행연구 중에서는 설문조사가 아닌 심층인터뷰나 직접 관찰, 기록 등의 연구 방식을 취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와 직접 관찰, 기록을 수행한 연구들의 경우, 각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생각과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표본을 선정,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10개 이하의 표본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최정민, 강순주 외(2016)의 경우, 8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공간을 실측하고, 심층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가변형 아파트 공간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8가구의 구체적인 이용행태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가변성에 대한 인식, 주거에 대한 요구, 가변형 아파트의 사용특성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표본수가 적어 각각의 사례가 매우 특수하게 받아들여지며, 일관된 경향을 이끌어내는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표 2〉 아파트 거주자의 이용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표본수)	연구 내용 및 결과
김한수, 김재홍 (1999)	아파트 각 실의 개조요구, 이용행태	2개월간 방문, 설문조사 (327부)	① 평형이 클수록 평면형이 분화, ② 침실, 주방, 욕실 위주에서 거실, 다용도실, 수납 배치를 중요시, ③ 규모가 커질수록 거실, 수납의 비중 증가, ④ 내부 자재, 설비 등에 대한 불만, ⑤ 거실, 주방, 안방, 욕실, 작은방 순의 중요도, ⑥ 내부 구조 변경은 마감재-설비기기-실의 구조 순으로 빈번
이복희, 한지영, 윤재웅 (1999)	안방의 사용행태	설문조사 (210부)	안방은 ① 취침과 몸단장, 부부의 사적 공간으로 인식, ② 드레스룸에 대한 요구, ③ 수납용 가구가 대부분이며 L자 형태로 배치, ④ 좌식 생활에 적합한 가구 사용
이영호 (1999)	아파트 욕의공간 이용행태 및 인식	설문조사 (263부)	세대원의 연령과 거주평수가 증가할수록 주차공간과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놀이 및 스포츠 공간에 대한 수요 감소
백지원 (2000)	아파트의 이용행태	설문조사 (211부)	생활양식과 공간의 부조화 발견 (가족의 단란에 공간계획의 주안점을 둔 반면, 실 사용자들은 개인공간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나타남), 각 공간의 크기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짐
강순주 (2003)	부엌의 이용행태	설문조사 (219부)	현대의 부엌은 취사, 물건보관, 세탁, 개인생활, 가족단란, 접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부엌과 차별점을 가짐
이성미 (2007)	조사대상자의 공간이용 행태 분석	시간에 따른 이용행태 기록 (3인)	대상자에 따라 동시발생행위, 공간이동성, 공적 사적 행위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냄, 이것을 디지털 문화로 인한 행동양식의 변화로 설명
조성희, 박지혜 (2007)	발코니의 사용행태	설문조사 (253부)	인접공간에 따라 발코니를 리빙발코니와 서비 스발코니로 분류할 수 있음, 리빙발코니에서 선택적 확장이 이루어짐
김명 (2015)	부엌의 이용행태	심층 0인터뷰, 현장실측 (6가구)	싱크-조리대-쿡탑 중심의 동선으로 단순한 조리 프로세스를 가지며 도구를 적게 사용
강순주, 최정민, 김유나, 김진영 (2016)	가변형 아파트 공간 사용특성	심층 인터뷰 조사 (8가구)	① 가변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 ②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용도로 활용, ③ 수납 부족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짐, ④ 공간에 대한 수요가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나누어짐, ⑤ 생애주기에 따라 실별 선호 상이

### 2.2.3. 아파트에서의 축소된 일상과 일반화된 장소성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써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거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이 부각되어 대량생산을 위한 가장 표준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되었다. 대량생산, 공급된 아파트에서의 일상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주거에 맞춰 제한된 행위만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가구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획일적으로 연결되어 거주자 간의 사회적 소통마저 차단했다고 평가되곤 한다.

아파트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는 아파트에서의 일상을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함으로써 은폐되었다고 지적한다.<sup>51)</sup> 주변과 유리된 위압적인 외관을 랜드마크의 개념으로 치환하고, 획일적인 내부공간 대신 화려한 외부공간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주거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과 맞물려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의 고급화 전략으로 채택되었다.<sup>52)</sup> 아파트를 고르는데 있어서 자신의 생활방식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를 결정하기보다는,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주거를 결정하고 주어진 주거공간에 자신이 적응해 사는 모습은 온라인집들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sup>53)</sup> 또한, 신문과 여성지, 방송을 통해 형성된 아파트에 대한 담론들은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널리 자리 잡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 내 각 공간에 일반화된 생활양식, 물리적 구성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했다.<sup>54)</sup> 아파트의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것이 거주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써 제시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제한하는가 하면, 이웃 간의 교

51)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2012, p. 267-277

52) ibid, p. 139

53)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풀빛, 2005

54) 김혜숙, 신문·잡지를 통해 본 아파트 생활기사의 주거담론적 특성과 변천,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13, p. 66-70

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공간구조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전략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일반화된 방의 배치와 가사효율의 극대화를 우선시 했던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의 일반화된 공간구성을 만들었다.<sup>55)</sup> 아파트가 가진 획일성을 은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아파트에서의 일상을 변화시켰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온라인집들이에서도 아파트가 가진 획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의 게시물에 드러난다. 개인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는 공간의 구성, 형태, 환경에 대한 불만은 전세, 월세와 같이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거공간을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온라인집들의의 서사는 아파트가 지닌 획일성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아파트 내 공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역할, 물리적 공간구성, 즉 장소성을 해체하고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재정의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파트가 가진 평면 유형의 유사성과 획일성은 온라인집들이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의 주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인의 주거가 재정의 과정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주거에도 재정의 과정을 적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장소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내 각 공간이 가지는 장소성은 계획과정과 공간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거나

---

55) 최정민, 주거 획일화와 극복방안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주거학회, 2006, p. 25-26

56) 변나향, 한국 아파트의 획일화 비판에 관한 재고찰, 한국주거학회, 2015, p. 61-62

일어나도록 계획된 일상행위, 공간 내의 일반화된 가구의 배치, 공간에 대한 묘사 등을 통해 이것이 드러난다. 아파트의 경우 NLDK에 의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N의 경우 침실의 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침실을 의미하며, L은 거실, D는 식당, K는 주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N, L, D, K에 해당하는 공간들의 장소성이 아파트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sup>57)</sup> 각 공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참조)

<표 3> 아파트 내 각 공간들의 일반적인 계획 및 사용 경향

	침실	거실	식당	주방
관련 일상행위	취침행위 개인생활	개인생활, 가족단란행위 접객행위	가족단란행위 식사행위 접객행위	식사행위 가사행위
공간 계획 주안점	- 독립적인 공간으로 프라이버시 강화	- 낮은 심도 - 다양한 기능의 가족실 - 동선의 주요 통로	- 거실, 주방과 연계하여 구성	- 주부의 동선계획을 중심으로 - 시각적으로 개방, 높은 심도
일반적인 배치의 기준	침대의 종류와 크기를 중심으로	소파와 티비의 배치를 중심으로	식탁과 의자의 크기를 중심으로	주부의 동선과 조리기구의 배치를 중심으로
공적, 사적 구분	사적	공적	공적	사적, 공적

김주성(2006), 이종각(2006), 손지혜(2008), 류종학(2013) 외 논문을 재구성<sup>58)</sup>

57) nLDK

58) 김수정, 공공아파트의 공간구성과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이후 주택공사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6; 이종각, 1990년 이후 아파트 단위평면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2006; 손지혜, 국내 아파트 실내공간 변화 연구 - 최근 아파트 평면을 중심으로, 2008; 류종학, 민간분양아파트 평면의 실별 평면계획요소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 1976년부터~2012년까지 H사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2013; 김동우, 아파트 주동 및 단위세대 변화와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 2000년

## 제 3장. 연구의 절차

###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주거를 타인에게 공개하고 주거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오늘의 집'의 '온라인집들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주거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 주거에 얹힌 전반적인 생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집들이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주거 내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기존의 정의와는 다르게 거주자가 재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거 내 공간들이 가진 기존의 의미와 역할을 부정하고 개인이 의도에 따라 새롭게 정의하는 현상은, 건축가의 설계에 따라 사용자가 건축을 사용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설명해줄 단서를 사회학 연구에서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융합미디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이전 시대의 인간과 다른 특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앞선 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듯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는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와 타인을 접하는 것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처음부터 주어지는 고정적인 것에서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소 개념의 경우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의미 사이의 연결이 약화되어 개인이 자신의 일상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정보를

---

대 초반 광주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2016; 변나향,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2014; 문학조, 임대아파트 단위세대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 양천구 SH공사 아파트와 Sanit Paul PHA 아파트의 비교, 2007를 바탕으로 재구성

바탕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드러나는 주거 내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온라인집들이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대표적인 융합미디어 서비스로, 온라인집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융합미디어 환경의 인간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온라인집들이에서 공유되는 아파트 전용사례와 같이 주거 내 공간의 주어진 정의를 부정하고 거주자가 새롭게 재정의하는 과정은, 물리적 공간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점에서 장소를 재정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파악했듯,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장소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거주자가 직접 서술한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에서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변화한 장소 개념과 관련하여 연구 문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집들의 아파트 전용사례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가?
  - 가. 온라인집들의 장소 재정의 과정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있는가?
  - 나.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온라인집들의 장소 재정의 과정의 구성 요소들이 일치하는가?
  - 다.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연계되어 온라인집들의 전반적인 서사를 이루는가?

온라인집들이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한 후, 거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장소를 재정의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장소의 재정의는 공간의 의미와 역할의 설정과 물리적 구성의

설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재정의한 공간의 의미와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물리적 구성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재정의가 어떤 거주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앞선 연구문제를 통해 파악한 개인, 일상행위, 정보 등의 요소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온라인집들이의 아파트 전용사례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장소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재정의 되는가?

가. 기존의 장소 개념의 어떤 부분이 거주자에 의해 재정의 되는가?

나. 기존의 장소 개념은 재정의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는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드러나는 주거 내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공유되는 과정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지식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파악하였듯이 주거는 개인의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체와 관련된 지식의 경우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지식을 구성한다. 온라인집들이에서 공유되는 아파트 전용사례들은 게시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와 정보의 형태로 공유된다. 댓글과 스크랩 등의 방식으로 공유되는 개인적 경험은 다양한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 수정, 축적될 여지를 가진다. 온라인집들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통해 공유되는 주거와 관련된 정보들이 개인적 지식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거가 단순히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으로써 존재하고 사용자가 그 속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과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주거와 인간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새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온라인집들이의 아파트 전용사례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의 공유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지식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가?
- 가. 온라인집들이를 통해 공유되는 장소의 재정의에 관한 정보는 개인적 경험과 관련을 가지는가?
- 나. 온라인집들이를 통해 공유되는 장소의 재정의에 관한 정보는 여러 개인들의 생산, 수정, 재분배를 거쳐 개인적 지식을 형성하는가?
- 다. 온라인집들이를 통해 형성된 개인적 지식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가?

## 3.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소셜미디어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의 정보가 융합되고,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의 기기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연결되기 때문에 융합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속의 개인은 융합미디어 환경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융합미디어적 태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형식에,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댓글이나 좋아요 등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는 주거를 사용하는 개인의 생각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더 정제된 정보에 다가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소셜미디어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테리어 정보 플랫폼 ‘오늘의 집’을 통해 공유되는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블로그 형식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온라인집들이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을 공개하고 주거공간에 얹힌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현관에서부터 거실, 침실 등 주거 전반에 걸쳐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짧고 분절된 글로 생각을 전달하는 타 소셜미디어에 비해 주거에 얹힌 전반적인 생각과 공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온라인집들이의 게시물은 크게 기초 정보, 본문, 그리고 댓글과 추천으로 구성된다.(〈표 4〉 참조) 기초 정보는 주거유형, 평수, 스타일, 가족형태, 기간 및 예산, 지역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기초 정보는 온라인집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배경 정보로 사용되며, 동시에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을 분류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검색 기능을 보조한다. 본문에는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공간별로 소개하고 주거공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본문은 사진과 텍스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사

진에 표시된 가구와 소품들의 정보가 링크의 형태로 제공된다.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면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게시물의 하단에는 댓글과 추천으로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sup>59)</sup>

<표 4>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의 구성

구성	온라인집들이 게시물	설명																			
기초 정보	<div> <div> 오늘의집 커뮤니티 스토어 전문가 </div> <div> <input type="text" value="Q 검색"/> </div> </div> <div> 홈 사진 집들이 노하우 전문가집들이 셀프커뮤니티 질문과답변 이벤트 </div> <div> </div> <div> <table> <tr><td>건물</td><td>아파트</td></tr> <tr><td>평수</td><td>24평</td></tr> <tr><td>스타일</td><td>모던</td></tr> <tr><td>작업</td><td>전문가</td></tr> <tr><td>분야</td><td>리모델링</td></tr> <tr><td>기간</td><td>3주</td></tr> <tr><td>예산</td><td>4200만원</td></tr> <tr><td>가족형태</td><td>신혼부부</td></tr> <tr><td>세부공정</td><td>주방리모델링, 물리신탈업</td></tr> <tr><td>지역</td><td>경기도 용인시 수지구</td></tr> </table> </div>	건물	아파트	평수	24평	스타일	모던	작업	전문가	분야	리모델링	기간	3주	예산	4200만원	가족형태	신혼부부	세부공정	주방리모델링, 물리신탈업	지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건물	아파트																				
평수	24평																				
스타일	모던																				
작업	전문가																				
분야	리모델링																				
기간	3주																				
예산	4200만원																				
가족형태	신혼부부																				
세부공정	주방리모델링, 물리신탈업																				
지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대표이미지

게시물을 대표하는 공간의 이미지가 표시된다.

← 기초 정보

주거 유형, 평수, 스타일, 작업 방식, 가족형태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게시물의 이해를 돕는 배경 정보이다. 동시에 검색 기능을 보조한다.

59) 필요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집들이’에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 문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문장 (프로젝트 번호)’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 번호는 개인이 올린 ‘온라인집들이’에 전산으로 부여되는 번호이며, [https://ohou.se/projects/\(프로젝트 번호\)](https://ohou.se/projects/(프로젝트 번호))를 입력하면 원문에 접속할 수 있다.

<p>본문</p>	<p>그리고 꽃을 좋아해서 집엔 곳곳에 꽃이 있어요. 예전에는 생화를 꽃아었는데 매번 꽃시장에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 조화로 바꿔요. 대신 제철에 맞춰 종류를 바꿔주고 있어요. 크게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아도 꽃과 작은 소품 몇 개지만으로 집엔 분위기가 달라져서 참 좋더라고요.</p>  <p>거실 바닥은 대리석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폴리싱타일이에요. 다들 처음에 보시면 대리석인 줄 아시더라고요. 원래는 신장이 제한했던 대리석으로 시공하려 했는데, 가격적인 면이나 관리가 쉽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폴리싱타일로 결정했어요. 무늬는 천연 대리석과 똑같은데, 천연 대리석보다 강하고 오염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어 개인적으로는 대리석보다는 폴리싱 타일을 추천하고 싶어요. 천연 대리석은 색이 균일하지 않아서 치장 항목별로 해 보일 수도 있고, 물을 잘 흡수해서 광택 다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p> <p>폴리싱 타일의 단점은 아무래도 시공이 까다로워서 장마루나 다른 소재들보다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p>	<p>← 공간별 사진</p> <p>설명의 이해를 돕는 사진이나 영상이 첨부된다. 거실부터 침실,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p> <p>← 제품 정보 링크</p> <p>링크를 통해서 접속하면 해당 상품의 상세정보가 제공되는 페이지로 연결된다.</p> <p>← 공간별 설명</p> <p>자신의 주거공간을 묘사하고 주거와 관련된 경험, 생각, 정보 등을 서술한다.</p>
<p>댓글</p>	<p>좋아요 1,975 스크랩 2,297 댓글 125 조회 143,763</p> <p>댓글 125</p> <p>방탄과 관련된 댓글은 작성자에게만 표시됩니다</p> <p>ARTJAY 소품 하나하나가 다 이백요 4일 전 · 좋아요 · 신고</p> <p>dhsmfdmldms 예쁘다... 2주 전 · 좋아요 · 신고</p> <p>불가리예 조목색이랑 골드가 어떨게 잘 어울리디나?? 정말 예쁘고 금색 스프레이도 하나 알아갑니다 친해 대박당이네요! 2주 전 · 좋아요 · 신고</p> <p>sd5377 전스 당치세요 잠깐이 진짜 호불호 커서 케스트랑 이차 놓아터 참..저도 그런함을 품었는데..잘 안되요 책상 놓았어던네..아마도 금색스프레이랑서 다 불합치네요!! 3주 전 · 좋아요 · 신고</p> <p>겨냥0114 이케아 책상 금색 스프레이 아이라 대박이세여! 3주 전 · 좋아요 · 신고</p> <p>1 2 3 4 5 6 7 8 9 &gt;</p>	<p>← 상호작용 데이터</p> <p>좋아요, 스크랩, 조회수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p> <p>← 댓글</p> <p>본문의 내용에 관해 글쓴이와 독자가 정보, 의견을 주고받는다.</p>

온라인집들이에는 국내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거 유형 중에서 아파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국내의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각 단위세대의 평면 구성이 NLDK의 형태로 유형화 되어있다. NLDK에 해당하는 침실, 거실, 다이닝, 주방은 공간별로 주어진 장소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각

공간의 정의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면 구성이 유형화되어있기 때문에, 주거의 물리적 형태가 아닌 의미적 측면에 주목하여 비교를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온라인집들이에는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게시물이 분류되어있다. 온라인집들이의 게시물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개인의 의도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인간의 특성 중에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가족 형태를 신혼부부 및 싱글로 한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실험자에 제작된 인터뷰, 설문조사의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임의로 선택된 표본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의 경우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제공,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사진, 텍스트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데이터는 아니다. 하지만 무질서해보이는 데이터를 관통하는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거를 대하는 거주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표본이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대변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주거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거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태도가 담긴 온라인집들이의 텍스트에 주목하고자 한다. 온라인집들이의 본문과 댓글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의 개념이 온라인집들이에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집들이의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글에서 유사한 서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배경이나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등을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주거공간의 수정 전후를 비교하며 공간별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한다. 온라인 집들이의 서사는 각 문단마다 이해를 돕는 자세한 사진들과 함께 제시되는데, 침실,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까지 거의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이때 온라인집들이는 주거공간을 가꾸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공간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들의 선택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구매 정보를 공유한다. 마지막에는 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주거공간 가꾸기 이후에 변화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sup>60)</sup>

온라인집들이의 서사구조 분석은 서사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사구성요소 분석은 각 문장들이 전체 서사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각 문장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유형화 하여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여러 차례의 구체화와 유형화를 통해 조금씩 포괄적인 카테고리를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서사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표 5> 참조)<sup>61)</sup> 이때 각각의 카테고리는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60) 허은석, 선택행위를 통한 자아확립의 매개로써 현대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9

61)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2012, p. 75-110,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에서 취하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비교함으로써 데이터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각 카테고리간의 유사점, 차이점, 연

주거와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성요소 카테고리 설정 과정

온라인집들이 원문 (프로젝트 번호 : 2917)	카테고리 설정 과정
맛집을 찾는 것도 재밌는 일이지만, 우리 부부 입맛에 맞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건 새로운 즐거움이죠. 좋은 식재료를 골라 아낌없이 양껏 넣을 수 있으니까요.	글쓴이의 취미(요리)에 대한 설명 → 자신에 대한 생각, 성찰 → 가꾸기 이전의 인식
또 다른 취미인 운동은 1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어요.	글쓴이의 또다른 취미(운동) → 자신에 대한 생각, 성찰 → 가꾸기 이전의 인식
결혼하고 살이 많이 찌서 인생 최고 몸무게를 기록하고 충격 받은 뒤로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운동인데, 지금은 유지도 할 겸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취미(운동)를 가지게 된 배경 → 자신에 대한 생각, 성찰 → 가꾸기 이전의 인식
지금 집에는 올 4월 10일에 이사왔으니, 이제 이 곳에 산 지 2개월 정도 됐네요.	현재 집으로의 이사 시기 → 현 주거에 대한 정보 → 현 주거의 조건
저희는 둘 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보니 첫째 조건이, 무조건 주방이 넓은 집이었어요.	주거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 → 주거에 대한 기존의 생각 → 가꾸기 이전의 인식
처음에는 넓은 주방이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찾았는데 생각해보니 아이계획이 없는 저희엔 청소도 그렇고, 굳이 무리해서 30평대 아파트를 가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조가 잘 나온 20평대 아파트를 찾기로 마음을 바꿨죠.	주거 선택의 기준 변화(구조가 잘 나온 아파트) → 주거에 대한 기존의 생각 → 가꾸기 이전의 인식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 때! 20년이나 되어 꽤 낡았지만 주방만큼은 아주 넓게 나온 지금의 집을 발견했어요.	현 주거공간의 발견과 장단점 → 현 주거에 대한 정보 → 현 주거의 조건
(중략)	
주방에서 바로 이어지는 작은 방은 홈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침실을 ‘홈집’으로 사용 → 공간의 재정의 →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로망이었던 커다란 거울을 뒀어요.	홈짐에 배치한 가구(거울) → 공간의 구성 →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커다란 거울은 운동을 할 때 자세를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은 신랑과 사진을 찍은 포토존으로도 활용하기도 해요 :) 운동을 하는게 습관으로 자리잡고 나니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운동을 하는게 더 좋더라고요.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집에 따로 마련해 놓으니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날씨나 시간에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 좋아요.	가구(거울)의 선택이유 → 공간의 구성 →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이 방에는 스피닝 바이크와 요가매트, 몇 가지 소도구가 전부예요.	홈짐의 장점 → 공간의 재정의 →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중략)	
'좋은 집', '좋은 공간' 이라는 것에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 편한 집, 우리에게 예쁜 집, 우리에게 잘 맞는, 우리다운 집을 만들고 싶었죠.	홈짐에 배치한 가구(운동기구) → 공간의 구성 →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우리 부부에게 '집'은 호텔이자 레스토랑, 그리고 때로는 놀이터가 되기도 해요. 이 사실은 시간이 흘러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바뀌지 않을거예요 :)	글주거에 대해 기대하는 바 → 주거에 대한 변화된 생각 →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
	주거에 대한 확장된 생각 → 주거의 재정의 →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

우선,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집들이의 본문 텍스트를 수집한다. 표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집들이 원문이 본 연구가 수집한 자료이다. 온라인집들이 원문은 다수의 사진을 포함하며, 사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사구조를 파악하거나, 이후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면상의 한계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진을 첨부하거나 설명을 통해 언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후, 수집한 온라인집들이의 표본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각각의 문장이 전체적인 서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적 카테고리를 설정하는데, 예비



적 카테고리는 각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있는 상태이다.(표의 카테고리 설정 과정의 파란색 부분) 예비적 카테고리를 설정하면서 다른 온라인집들이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서로 다른 표본들에서 분류된 예비적 카테고리를 비교하면서 조금씩 포괄적인 카테고리를 설정해 문장들을 유형화 한다.(표의 카테고리 설정 과정의 빨간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 이를 통해 각각의 온라인집들이 표본들이 가지는 카테고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또한 각각의 카테고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기존에 주어진 장소성을 따르지 않고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상행위를 바탕으로 정보를 통해 장소를 재구성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었다.(p.16, 2.1.2. 융합미디어에 의한 장소성의 해체와 재구성 참조) 온라인 집들이 본문의 텍스트를 문장단위로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이러한 가정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류한 서사구성요소 중에서, 기존의 주어진 장소성을 부정하는 요소, 주거 내 장소를 새롭게 정의하는 요소, 새롭게 정의된 장소를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이 주체가 되는지, 일상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보를 통해 장소를 재정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 개념에 의해 거주자가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온라인집들을 통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4장. 온라인집들이 장소 재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한 장소 개념

### 4.1. 온라인집들이 본문의 서사구성요소 분석

총 3364개의 온라인집들이 게시물 중에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2296개가 있었으며, 그 중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싱글, 신혼부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913개가 있었다.<sup>62)</sup> 913개의 대상 게시물 중 인기글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62개의 사례를 문장 단위로 분석하였다.<sup>63)</sup> 인기글은 게시물의 조회 수, 추천 수, 댓글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산으로 선정된 게시물로, 온라인집들이 게시물 중 영향력이 크고 대표성을 가지는 게시물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온라인집들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사 구성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주거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된 인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분류할 수 있었다.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조는 크게 가꾸기 이전의 인식, 현 주거 환경,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sup>64)</sup>

본 연구가 주목한 장소의 재정의 과정은 4가지 서사구성요소 중에

---

62)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와 주거의 직접적인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대상을 개인(‘싱글라이프’ 카테고리)과 2인 거주가구(‘신혼부부’ 카테고리)로 한정하였다.

63) 62번째 게시물 이후에서는 추천 및 댓글 수가 크게 떨어져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64) 허은석, 선택행위를 통한 자아확립의 매개로써 현대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9, 본 연구의 서사구조 분석은 허은석(2019)를 참조하였다. 허은석(2019)에서는 연구대상을 개인으로 제한하고 주거유형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개인과 신혼부부로 제한하는 동시에 주거유형 또한 아파트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 가꾸기 이전의 인식, 현 주거 환경,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3가지만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은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은 장소의 재정의 과정으로부터 변화된 주거에 대한 생각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아확립의 과정이 포함되어있다.<sup>65)</sup>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파악한 재정의 과정을 바탕으로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으로 확장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주거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1.1. 가꾸기 이전의 인식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글쓴이 자신 대한 생각과 성찰이 제시된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직업, 생활방식 등의 배경을 설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향과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현재의 주거공간을 가지기 이전의 자신의 인식을 제시하거나, 과거의 주거에서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기도 한다.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자신의 생활방식과 현 주거 환경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에서 기존의 공간이 가진 주어진 성격을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춰 재정의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은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저희 부부는 일하고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편이요. 여행도 자주 다니려 하고 주말에는 맛집과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 평일에 미리 계획을 세워둬요. 카페투어를 즐기는*

---

65) 허은석, 선택행위를 통한 자아확립의 매개로써 현대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9

데 맛있는 커피와 분위기가 좋은 곳을 찾으면 그렇게 좋을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집을 저희에게 맞게 바꾸고 나서는 카페에 가는 것 보다 맛있는 원두를 사와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일상 속 즐거움이 됐어요.(3188) 66)

결혼 이전에는 함께 맛집과 카페를 다니기를 즐겨했던 부부의 생활방식을 온라인집들이 서두에 제시한다.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맛집과 카페를 즐기던 기존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후 거실의 일부를 홈카페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방식이 주거에 반영되게 된다. 이 글을 통해 글쓴이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주거가 포함하지 않는 카페라는 프로그램도 주거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저희는 둘 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보니 첫번째 조건이, 무조건 주방이 넓은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넓은 주방이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찾았는데 생각해보니 아이계획이 없는 저희에겐 청소도 그렇고, 굳이 무리해서 30평대 아파트를 가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조가 잘 나온 20평대 아파트를 찾기로 마음을 바꿨죠.(2971) 67)

요리를 좋아하던 글쓴이의 생활방식에 맞춰 주방이 넓은 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계획, 청소 등의 자신을 둘러싼 다른 일상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주

---

66) 20년 넘은 복도식 아파트를 부부의 아지트로, 2017년 10월 24일 22:34, (<https://ohou.se/projects/3188/detail>)

67) 신랑의 취향과 내 취향을 모두 담아, 24평 신혼집, 2017년 06월 13일 20:05, (<https://ohou.se/projects/2971/detail>)

거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주거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다. 이러한 성찰은 이후 주방이 넓은 20평대의 주거라는 기준에 우선적으로 맞춰 주거를 선택하게 하고 그 외의 다른 공간들을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게 재정의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와이프와 여행하는 동안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우리 주변이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는 공간과 물건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꾸며 낸 저와 제 와이프의 생활공간이라 혹시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렇게 온라인 집들이를 쓰게 되었습니다.(2772) 68)*

글쓴이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삶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생활방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공간을 갖기로 결심한다. 프리랜서로서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던 글쓴이는 자신의 작업공간을 거실에 배치하고, 다이닝을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구성한다. 글쓴이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주거공간 가꾸기의 시작이라고 설명하며 다른 온라인집들이 사용자와도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적인 상황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생활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장소의 재정의가 이루어질 때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상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

68) 신랑의 취향과 내 취향을 모두 담아, 24평 신혼집, 2017년 06월 13일 20:05, (<https://ohou.se/projects/2971/detail>)

#### 4.1.2. 현 주거 환경

온라인집들이에서 현 주거 환경은 현 주거를 선택한 이유가 되는 동시에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묘사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 주거 환경에서 자신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온라인집들이의 중심적인 서사가 된다.

본연구가 대상으로 한 아파트의 경우 모두 대량 생산, 공급된 기성제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생활 방식에 완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공간의 형태나 배치와 같은 공간 구성에서부터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내부 마감이나,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옵션에 대한 불만을 포함한다. 또한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세, 월세와 같은 주택 공급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불완전한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불완전한 소유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는 재정의한 주거공간을 자신의 의도대로 수정하는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 집은 지은지 18년 된, 26평형 아파트예요. 계단식 26평이라면 괜찮았을텐데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 전용면적은 18평이 조금 넘는 정도예요. 대개 비슷한 평수의 다른 아파트들은 방이 2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집은 방이 3개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 곳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산이 있어 공기가 좋은 점도 마음에 들었구요. :) 저희 집은 거실이 안방보다 작아요. (3077) 69)*

글쓴이는 집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필라테스를 하기도 하고 물건 수집을 하기도 하는 등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같은 평수의 다른 집 보다 방이 많은 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침실을 다른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자신

---

69) 복도식 26평 아파트, 아담한 신혼집 리모델링, 2017년 08월 09일 20:05, (<https://ohou.se/projects/3077/detail>)

의 주거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자신이 선택한 주거가 방이 많은 대신 거실이 작다는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는 이후에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에서 주방과 거실 사이의 벽을 제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극복한다.

*처음엔 20년이나 된 2층, 게다가 서향집이라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처음 공사를 시작 할 땐 이 집의 단점만 안 채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살면 살수록 좋은 점들만 보이는 집이 됐어요. :) 이 집은 복도식 25평형이라 실평수가 더 작은 편이고 안방 사이즈와 거실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집 안에 뭔가를 두지 말자가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안 해도 확장은 할거야라며 결심하고 했는데.. 내력벽이라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걸 공사 당일에 알게 된 거예요..(3118)  
70)*

글쓴이는 전업주부라는 자신의 생활방식 때문에 집의 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거실을 넉넉하게 카페처럼 사용하고 싶었지만, 현 주거 환경에서 주어진 공간에서 한계를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구분되어있던 테라스와 거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재정의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현 주거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현하지 못한다. 글쓴이에게 현 주거 상황은 완전한 제약으로 다가온다. 결국 글쓴이는 이후 테라스와 거실을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다이닝 공간을 가변적으로 구성해 거실의 일부로써 재정의한다.

*전세집을 구하고 나서도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2년 살건데 꾸며야하나? 대충 참으며 살아야하나?” 사실 저희 부모님은 ‘남의*

---

70) 20년 넘은 복도식 아파트를 부부의 아지트로, 2017년 10월 24일 22:34, (<https://ohou.se/projects/3188/detail>)

집'에 돈 들이지 말고 내 집 구할때 까지는 대충 살으라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전 지금 이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2년이란 길다면 긴 시간을 대충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인생에서 단 1분1초도 대충 사는건 싫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들고 갈수 있는것은(가구 및 소품) 과감히 투자하고, 그외에 지금 살고있는집에 두고가야만 하는 것들은(가벽)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것이 컨셉이었어요.(177471)

글쓴이는 전세로 집을 구해 자신의 주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대로 주거공간을 재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전세와 상관없이 자신의 공간을 재정의하기로 결정한다. 전세 상태의 주거는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주어진 주거의 성격이라면, 이 사례는 전세라는 주어진 계약을 따르지 않고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재정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5만원 내외의 합판으로 가벽을 세우고 기존의 주어진 공간을 서로 다른 용도로 분할하는 등의 재정의가 이루어진다.

온라인집들이 서사에서 현 주거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은 기존의 주거가 가진 정의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현 주거 환경은 주거를 선택하기 이전부터 주어진 공간의 특성이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 방의 용도, 배치, 크기 등이 어느 정도 규정된 상태로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진다. 다수의 온라인집들이는 주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제적, 입지적 원인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는 공간을 선택하게 되고, 입주 이후 재정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주거를 선택하게 된다.

---

71) 대충 살지 말자! 22평 전셋집꾸미기, 2016년 03월 01일 16:56, (<https://ohou.se/projects/1774/detail>)



### 4.1.3.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자신의 주거를 수정 전과 후로 나누어서, 주거공간을 재정의, 재구성함으로써 주거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묘사하는 서사방식이 주를 이룬다.(〈표 6〉 참조) 완성된 주거공간이 아닌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을 중심으로 온라인 집들을 서술하는 모습을 통해, 온라인집들이 글쓴이들은 가꾸기 과정에서 자신의 가꾸기 행위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공간 가꾸기는 글쓴이가 주거공간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표 6〉 온라인 집들이에서 수정 전, 후를 비교하는 서술 방식의 예

수정 전 (비포)	수정 후 (애프터)
 <p>위 사진은 공사 전 거실 모습이에요. 정면에 보이는 문이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죠. 넓긴 하지만 현관공간이 없어서 신발, 우산 같은 걸 보관할 공간이 없었습니다.</p>	 <p>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발과 창고를 겸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전달, 기존에 없던 벽돌 벽을 세우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디자인을 제안해주셨습니다. (3075) <sup>72)</sup></p>

72) “7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 근사하잖아요!”, 2017년 08월 08일 20:05,

공간 재정의 과정은 기성주택을 자신의 생활방식에 적합하게 가꾸기 위해 필요에 따라 주어진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다. 기존에 거실, 침실 등으로 명명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문이나 벽 일부를 제거해 방을 트거나, 가벽을 이용해 분절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카페, 시어터, 체육관 등과 같은 통상적인 주거가 포함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융합미디어 환경의 장소는 기존에 주어진 장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개인이 재정의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공간을 재정의하는 과정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인간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거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보여주기도 한다.

나무 향이 날 것 같은 아주 크고 멋스러운 통나무 우드 슬랩에  
철재 다리를 달고 거실 가운데 위치시켰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책을 보고, 꽃 작업을 하고,  
기타를 치고, 영화를 보고, 식사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때론 테이블 위에 향초를 태우고 빈티지  
소품들을 데코하여 분위기를 내기도 합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아트월 형태로 책장을 제작하였어요. 보통은 TV가 놓이는 공간인데  
과감하게 TV를 없애고 전면 책장을 스타일링 하였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기도 하고,  
언젠가 내 집을 가지게 된다면 거실에는 온전한 북 카페로 만드리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9504) <sup>73)</sup>

온라인집들이에서는 대부분 기존의 공간이 가진 명명을 우선 받아들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아파트가 가진 각각

---

(<https://ohou.se/projects/3075/detail>)

73) 추억이 담긴 액자와 아끼는 식물들로 꾸민 신혼집, 2019년 04월 02일 10:05,  
(<https://ohou.se/projects/9504/detail>)

의 공간의 명명이 너무나도 일반화 되어있고, 공간의 구조상에서도 각 공간의 심도나 시각적 노출, 접근에서 큰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글쓴이도 우선 거실이라는 명명을 사용함으로써 수용하지만 ‘북 카페’라는 새로운 명명으로 기존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 북카페라는 새로운 정의는 책을 보고, 꽃 작업을 하고, 기타를 치는 등의 일상행위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글쓴이는 거실의 한쪽 벽면을 ‘TV가 놓이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글쓴이는 ‘보통은 TV가 놓이는 공간인데 과감하게 TV를 없애고’라는 직접적 표현을 통해 기존의 거실이 가진 공간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 속 중문이 있는 방을 거실로 사용하고, 그 옆쪽 방은 침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저희 집 거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위 사진 속 공간은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아끼는 곳 중 하나예요. 집순이인 제 취미가 '홈 카페' 놀이인데, 그래서인지 몇 년 사이 모은 컵들이 작은 그릇장에 한가득이네요. 이제 제 침실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침대 옆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거기에 책상을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보시다시피 책상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온갖 잡동사니가 놓여 있는 이름만 책상인 곳입니다.(9480) 74)*

글쓴이는 크기가 애매해 거실로 사용할 수 없는 거실을 두고, 조금 넓은 크기의 방을 거실로 명명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방이었던 공간을 ‘먼저 저희 집 거실부터 보여 드릴게요.’와 같이 거실로 부르면서 거실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새롭게 명명된 거실을 다시 한번 ‘홈카페’로 재정의하는데, 이는 자신의 취미생활과 연관된 일상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

74) 다양한 색이 공존하는 빈티지 싱글 하우스, 2019년 03월 25일 10:05, (<https://ohou.se/projects/9480/detail>)

침실에 관한 설명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책상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온갖 잡동사니가 놓여 있는 이름만 책상인 곳입니다.’와 같이 책상 또한 기존의 책상다운 기능을 상실한, 온갖 잡동사니가 놓여 있는 곳으로 재정의한다. 보통 책상은 사물이기 때문에 ‘것’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글쓴이는 책상을 ‘곳’으로 묘사하면서 책상을 가구로써 보다는 영역으로써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의 재정의 과정은 주거, 방 뿐만 아니라 작은 영역의 규모에 걸쳐서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실 소파 뒤로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문 너머의 남편 방은 손님이 오면 오픈 할 수 있는 게임 방으로 꾸미기로 했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남편 게임방이 있어요. 원래는 밝은 마루였는데 방염 타일 카펫을 깔았어요. 어두운색이라 방이 좀 더 아늑해진 것 같아요. 늘 본인보다 저를 먼저 챙기는 고마운 남편을 위해 컴퓨터 옆 공간에 남편을 위한 맥주 냉장고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 위로는 제가 좋아하는 보드카와 칵테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홈바 코너도 있는데 깜박이는 불빛이 들어와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9493) 75)*

글쓴이는 거실과 이웃한 방을 홈PC방으로 재정의한다. 그리고 홈PC방을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써 정의하면서 거실과 연계되어 더 넓게 쓰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거실은 평소에는 가족생활 공간으로써 소파와 TV를 가진 기존의 정의를 따르지만, 손님이 오는 경우 손님을 맞이하는 홈PC방과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연계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재정의된다. 또한 홈PC방에는 다양한 술이 구비되어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거실이 ‘홈바’로 재정의되는 등, 상황에 따라 거실을 여러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75) 꽃과 빈티지를 좋아하는 아내가 꾸민 아기자기한 신혼집, 2019년 03월 20일 10:05, (<https://ohou.se/projects/9493/detail>)

있다.

이렇게 재정의된 공간은 개인의 일상행위로 연결되기 위해 물리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필요한 가구를 배치하거나 소품을 두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융합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정보가 활용되는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여러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거나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활용된다. 자신의 공간을 재정의하는데 쓰인 정보는 글쓴이에 의해 재가공되어 다시 온라인집들이 사용자들에게 전달된다.

*잘- 고치고 잘- 꾸미려면 집 평면도 위에, 가구배치를 시뮬레이션 해 봐야 우리집 사이즈에 맞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가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치만 재서 집에서 줄자로 대충 하면서 '음. 이 정도구나'라고 해서는 상상의 나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 다른 방법이 없을까 폭풍검색을 하던 중 '플로어플래너'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아직은 베타버전이라 부족한 점도 있지만 도면을 그리고 나면 바로 3D 모드로 넘어가면서 따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제가 상상한 집의 내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편리했어요. 그래서 나온 최종배치도가 바로 위 이미지입니다!(2765) <sup>76)</sup>*

글쓴이는 가구배치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폭풍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 결과 가구배치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주방, 거실 등의 공간에 인테리어 시공, 가구 배치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온라인집들이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한다. 글쓴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해서 얻게된 정보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통

---

76) 남편의 사랑이 곳곳에, 17평 신혼집, 2017년 02월 20일 20:05, (<https://ohou.se/projects/2765/detail>)

해 장점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활용한 후기의 형태로 정보를 재가공해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권하고 있다.

*다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꿀팁 한가지는, 사실 꿀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저처럼 인테리어가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볼까 해요. 앞서 자기소개에서 말씀 드렸듯이, 전 미적감각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리모델링을하기로 마음 먹은 후부터 인테리어 관련 블로그 글과 특히 ‘오늘의 집’의 많은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따로 저장을 해두면서 나름 공부(?)를 했어요.(300677)*

글쓴이는 ‘오늘의 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따로 저장함으로써 자신만의 스타일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후 각 공간을 설명할 때 ‘오늘의 집에서 찾은 가구(소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 ‘오늘의 집’에서 얻은 정보가 많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글쓴이는 한단계 더 나아가 자신이 정보를 찾은 과정을 ‘꿀팁’으로써 다른 온라인집들이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했던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장소성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과 관련된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에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일상행위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주거 환경’에서는 기존의 주거가 가진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에서는 기존의 공간이 가진 정의를 따르지 않

---

77) 제일 좋은 놀이터 #홈카페 #홈바, 2017년 07월 01일 13:05, (<https://ohou.se/projects/3006/detail>)

고 개인이 의도에 따라 재정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융합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 온라인집들이 서사구성요소 간의 관계 분석

본 장에서는 각각의 서사구성요소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서사구조의 부분으로써 서로 연관되어있음을 보임으로써, 온라인집들이 서사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장소성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온전히 담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사례별로 중심적인 서사구성요소를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하고 모든 서사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표 7〉 참조)

〈표 7〉 온라인집들이 사례별 주요 공간 재정의와 관련된 서사구성요소 추출

번호	제목	평면 유형	면적	가꾸기 이전의 인식, 경험		현 주거 환경 기존 주거의 특성 파악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상행위를 바탕으로		공간의 재정의	재정의의 바탕으로 재구성
2501	디자인전공 신혼부부의 27평 아파트	2L+DK	27					
2971	신랑의 취향과 내 취향을 모두 담아, 24평 신혼집	2L+DK	24	저희는	운동	남는 침실	홈집	운동기구와 거울
1706	일하고 노는 유쾌한 신혼집	3L+DK	34	우리 부부	덕질과 놀이	넓은 거실	놀이터 같은 거실	작업테이블, 장식장, 해먹
3090	시원시원한 창문 덕에 밤낮으로 예쁜 집	3L+DK	25	저는	침대에서 생활	혼자살기에 넓은	거실 대신 침실	모든 가구를 침실에
3099	계획은 내가! 공사는 전문가가! 33평 반셀프리모델링	3L+DK	33	저는	카페를 좋아함	거실과 베란다	홈카페	원형테이블과 카페용품
3188	20년 넘은 복도식 아파트를 부부의 아지트로.	3+LDK	25	저는	카페를 좋아함	거실과 베란다	홈카페	커피테이블
3063	오랜 것의 매력, 건축가부부의 43살 아파트	2+LDK	25	저희는	평범한 것을 거부	멋진 뷰	뷰에 집중하는 공간	창을 위해 벽 제거
2997	컬러와 구조가 눈에 띄는 24살 아파트 #16평	2L+DK	16	저는	열어놓고 생활	공간구분이 확실	공간 연계, 분리	가벽과 이동식 테이블
3623	살짜만 바꾸니 더 마음에 드는 새 집 #신혼인테리어	2L+DK	25					
2772	프리랜서 공간디자이너의 철학을 담은 집 #24평	2L+D+K	24	저는	아내와의 대화	분리된 다이닝	부부의 역사가 담긴	넓은 장식장과 테이블
2765	남편의 사랑이 곳곳에, 17평 신혼집	1L+DK	17	저는	집에서 작업	좁은 거실	쉬면서 일하는 홈카페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
3077	복도식 26평 아파트, 아담한 신혼집 리모델링	3L+DK	26					
1727	오밀조밀 아늑한 실평수 10평 신혼집	1L+DK	10	저는	집순이	좁은 집	하루종일 보내는 공간	다이닝+작업 테이블
7906	오션뷰 신혼집에 맘껏 펼친 인테리어 로망	3L+DK	34	우리 부부	책, 피아노, 와인	멋진 오션뷰의 방	숨은 거실	좋아하는 것으로 구성
2944	미니멀라이프에 내 취향 한 스펀 #25평	2L+DK	25	저희는	비를 보며 대화	좁은 다이닝	비를 보는 공간	창가를 향하는 테이블
7722	은은한 조명 아래 카페 같은 부부의 아지트	3L+DK	32	저는	카페, 반려견	좁은 다이닝	반려견과 함께 홈카페	창가를 향하는 테이블
5952	손때가 묻은 것처럼 편안한 집을 만들고 싶었던 부부	3L+DK	32	우리 부부	캠핑을 좋아함	넓은 침실	텐트처럼 아늑한 공간	가벽으로 방을 분리
4340	아일랜드 식탁이 돋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3L+DK	19	저는	카페를 좋아함	좁은 거실	홈카페	가구 없이 넓게 사용



3170	건축가+디자이너 부부의 19평 신혼집 인테리어 1탄	1L+DK	19	저는	신랑과의 대화	분리된 주방	오픈키친	벽을 허물어 거실과 연계
3133	빈티지소품 컬렉터의 이야기가 담긴 집	3L+DK	25	저희	빈티지 소품 수집	불필요한 옷방	서재 겸 작업실	불박이장을 책장으로 활용
10041	꼭 닮은 두 사람의 로맨틱 빈티지 '네모'	2L+DK	24	저희 부부	캠핑을 좋아함	거실	홈캠핑	캠핑장비로 생활
9888	습관과 취향, 사랑하는 것들로 그린 작은 집	4L+DK	24	저희는	그림을 좋아함	복도와 거실	갤러리 같은 집	그림과 장식장
10124	반셀프인테리어로 탄생한 머무르고 싶은 집	3L+DK	34	우리 부부	요가하며 휴식	남는 침실	알파공간	요가, 차 용품
9734	부지런히 정돈하며 살피는 재미	3L+DK	26	저는	카페 사진찍기	좁은 거실과 식당	홈카페, 포토존	거실과 식당을 함께 사용
9640	반려묘 사랑 듬뿍 얻은 러블리 레트로 하우스	3L+D+K	35	저는	집순이, 고양이	넓은 거실	주 생활공간	고양이 용품, 소파를 침대
9504	추억이 담긴 액자와 아기는 식물들로 꾸민 신혼집	3L+D+K	33	저는	플로리스트	남는 침실	홈 가드닝 공간	식물로 가득, 작업테이블
9493	꽃과 빈티지를 좋아하는 아내가 꾸민 아기자기 신혼집	3L+D+K	34	저희는	친구들과 게임	남는 방	게임방	거실과 벽을 터 넓게 사용
9480	다양한 색이 공존하는 빈티지 싱글 하우스	2L+DK	22	저는	빈티지 소품 수집	작은 거실, 큰 방	방을 거실로, 홈카페	빈티지 소품과 커피테이블
9421	작은 집도 전셋집도 예쁘게 꾸밀 수 있어	2L+DK	15	저는	식물을 좋아함	베란다와 침실	정글같은 침실	식물로 가득, 작업테이블
9402	집도 무언가를 걸칠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2L+DK	46	저는	가드닝에 관심	넓은 테라스	테라스 다이닝	테라스에 큰 소파, 테이블
9418	작은 것 하나를 들일 때도 신중하게 고민한 신혼집	3L+D+K	25	저는	구조를 자주 바꿈	거실	다양한 이벤트의 거실	모듈형 소파를 변형
9398	암스테르담에 머물렀던 기억으로 가꾼 집	3L+DK	25	저는	책과 그림	거실과 이웃한 방	화실	문을 제거해 거실과 연결
1635	#111. 직접 만난 그 신혼집	3L+DK	30	저희	집에서 밥을 안함	좁은 거실	다이닝을 거실로 흡수	책상을 구석에 배치
3220	체리 몰딩 안녕! 깔끔한 화이트와 골드 포인트의 만남	2L+DK	24	저희 부부	-	거실	넓은 다이닝 공간	거실에 가운데에 식탁
2567	홈카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신혼집	2L+DK	15	저는	캠핑을 좋아함	거실과 베란다	홈캠핑	캠핑의자와 인조잔디
3295	알찬 신혼집으로 변신한 25년 된 14평 복도식 아파트	2LDK	14	저희는	-	넓은 침실	침실+거실+다이닝	접이식 가구 활용
2727	최대한 심플하게 #24평	3L+DK	24	저희는	책, 영화 좋아함	거실	북카페	커다란 테이블, 벤치
3734	복작복작, 귀여운 변화가 눈에 띄는 19평 신혼집	2LDK	19	저는	거실에서 생활	거실	캠핑장	텐트, 침대, 식탁
2872	비우는 즐거움, 미니멀 신혼집 #반셀프리모델링	2L+DK	20	우리 부부	미니멀 라이프	거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어떤 가구도 두지 않음

2470	전셋집도 꾸미고 살아요! #16평_복도식아파트	2LDK	16					
2940	대화가 끊이지 않는 집, 50평 리모델링	4L+DK	52	저는	일하는 남편 대화	분리된 다이닝	일도하고 대화도 하는	8인용의 넉넉한 테이블
3079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우리에겐 가장 좋은 집	2L+DK	15	우리 부부	미니멀 라이프	거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바닥에 놓고, 접이식 가구
3132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 신혼집 홈스타일링 #26평	3LDK	26					
7840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갤러리 같은 신혼 29평 인테리어	3LDK	29	저는	음악을 좋아함	남는 방	취미방	피아노, 기타, 편안한 빈백
2154	여백이 주는 편안함	2L+DK	32	저희는	취미로 그림	침실과 베란다	그림 그리는 공간	이젤과 편안한 의자들
2842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더 아름다워지는 #25평	3LDK	25	우리 부부	게임을 좋아함	남는방	게임방	컴퓨터 2대와 수납공간
3475	“집을 이렇게나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3L+DK	30	저는	창 밖 보기	거실과 베란다	멍하니 창 보는 공간	창 밖을 향하게 소파 배치
1712	가벽과 부엌이동으로 효율적인 공간활용	2L+DK	20	저는	평범한 것을 거부	넓은 거실	거실겸 다이닝	주방을 거실로 이동
2919	선택의 연속, 34평 올리모델링	3LDK	34	저희 부부	술을 좋아함	거실	홈바	긴 바테이블과 조명 설치
4532	누가 뭐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블랙&화이트	3L+DK	30					
3057	함께하고, 기록하고, 부부의 취향	3L+DK	35	저는	취미로 그림과 책	남는 방	게스트룸	취향 보여주는 액자, 소품
2017	아트월이 돋보이는 블랙/화이트 신혼집	3L+DK	30	저희는	장난감 수집	남는 방	취미공간	수집한 인형과 피규어 전시
3494	폭풍 같던 공사를 끝내고, 나를 담은 공간 완성!	2LDK	10	저는	로프트에서 생활	거실	거실+다이닝+서재	다용도 테이블, 빔프로젝터
3390	빈티지를 좋아하는 그녀와 마흔 된 아파트의 만남	1L+DK	15	저는	심미적인게 중요	거실	다이닝으로 사용	식탁을 두고 소품으로 장식
3379	화이트+우드+그레이, 홈스타일링으로 완성한 신혼집	3L+DK	20	저는	옷, 화장에 관심	남는 방	동선이 편한 드레스룸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결합
3075	“7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 근사하잖아요!”	3L+D+K	30	저희는	소품 수집	넓은 거실	박물관	가벽, 소품을 선반에 전시
2737	'지금'의 우리집에 애정을 갖고 #30평 #홈스타일링	3L+DK	30	우리 부부	손님과 함께 식사	넓은 거실	손님과 함께하는 공간	8인용 테이블을 대각선으로
7755	14평 인테리어, 알뜰하고 실속 있는 꼭 찬 신혼집	2LDK	14	저는	술을 좋아함	좁은 거실	홈바로 활용	러그와 테이블, 조명

각 사례별로 공간의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심적인 서사로 보고, 이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서사구성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수집한 62개의 온라인집들이 사례 중, 공간 재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6개의 사례를 제외한 56개의 사례에서는 공간 재정의가 이루어졌다. 공간 재정의가 이루어진 56개의 사례 중에서, 공간 재정의가 바탕으로 하는 일상행위를 언급하지 않는 2개의 사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54개의 사례에서 공간 재정의로 이어지는 서사구성요소들이 인과관계에 따라 나타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3. 소결

온라인집들이로부터 수집한 62개의 사례를 문장단위로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문장이 전체 서사구조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이때 문장의 분류는 선행연구로부터 파악한 주거와 인간의 관계,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장소의 해체와 재구성에 관련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집들이의 문장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체화되고 유형화된 서사구성요소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1)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 (2) 현 주거 환경, (3)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4)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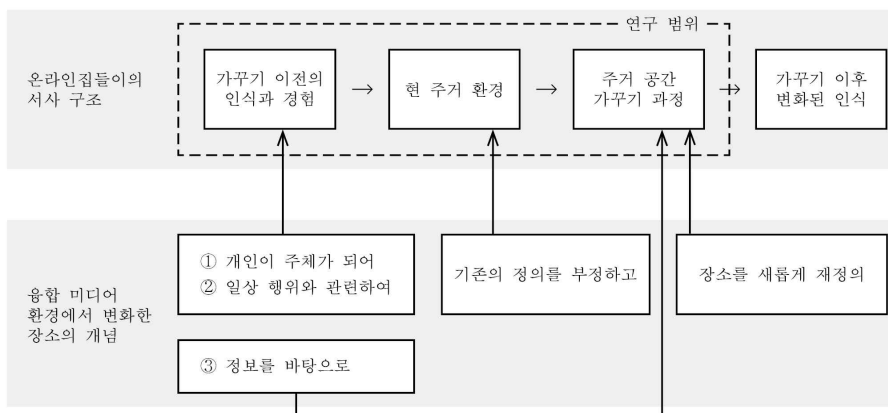
(1)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은 글쓴이 자신에 대한 생각과 성찰, 주거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된다.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의 일상행위를 서술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장소의 해체와 재구성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상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일치한다.

(2) 현 주거 환경은 자신이 현 주거를 선택한 이유와 주거가 가진 제약을 이야기한다. 현 주거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주어진 주거에서 재정의되어야 할 공간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는 앞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주어진 장소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다는 점과 일치한다.

(3)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은 공간의 재정의와 재정의의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기존의 주어진 공간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명명을 사용하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주어진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특히 재정의의 바탕으로 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융합미디어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장소의 해체와 재구성이 정보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일치한다.

이후, 각 사례 별로 서사의 중심이 되는 공간 재정의 과정과 연계되는 서사구성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62개의 사례 중 54개(87.1%)의 사례는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 현 주거 환경,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의 서사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과관계에 의해 연결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주거내 공간 재정의의 과정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상행위를 바탕으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온라인집들이에서 개인이 주거를 가꾸는 과정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인간이 장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 온라인집들이의 서사구조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의 개념 비교

## 제 5장. 온라인집들이 장소 재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정의 방식과 범위

온라인집들이에서는 기존에 주어진 공간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일상행위를 바탕으로 정보의 조합을 통해 공간을 재정의함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파악한 재정의 과정의 배경을 바탕으로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이 앞서 파악한 개인, 일상행위, 정보 등의 요소로부터 어떻게 비롯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거주자가 재정의 행위가 배경으로 하는 주거에 대한 요구와 현실적 조건들을 확인한다. 앞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온라인집들이의 아파트 전용사례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가. 기존의 장소 개념의 어떤 부분이 거주자에 의해 재정의 되는가?
  - 나. 기존의 장소 개념은 재정의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는가?

문장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세 가지 유형은 (1) 주거의 역할을 재정의 : 새로운 프로그램, (2) 주거 내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 : 실의 맞춤화, (3) 주거의 물리적 구성을 재정의 : 교차와 통합 이다.<표 8> 참조)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범위에서 주거를 재정의한다.

〈표 8〉 온라인집들이 사례별 공간 재정의 방식의 분류

번호	기존 공간	공간의 재정의	분류	번호	기존 공간	공간의 재정의	분류
1635	방	드레스룸에 포토존	새로운 프로그램	3133	방	서재 겸 작업실	새로운 프로그램
1706	거실	덕질과 놀이, 작업이 함께하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3170	거실	거실 겸 작업실	새로운 프로그램
1727	거실	서재 이면서 취미공간, 하루종일 보낼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3188	거실	홈카페, 손님을 대접하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2017	방	취미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3734	거실	TV를 보면서 먹거나 잠들거나, 캠핑장의 느낌	새로운 프로그램
2154	방	침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4340	거실	홈카페	새로운 프로그램
2567	거실	홈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4340	식당	홈카페	새로운 프로그램
2765	거실	한쪽은 쉬는 곳, 한쪽은 일하는 곳, 홈카페	새로운 프로그램	4532	거실	카페 공간, 영화를 좋아해	새로운 프로그램
2772	거실	집무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5952	거실	아늑한 느낌의 거실, 홈파티를 위한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2772	주방	라운지바 같은 주방	새로운 프로그램	5952	방	사색의 방	새로운 프로그램
2842	거실	커피, 식사, 작업 할 수 있는 홈카페	새로운 프로그램	7722	방	여러 용도의 서재 겸 작업실	새로운 프로그램
2842	방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방	새로운 프로그램	7722	방	침실에 포토존	새로운 프로그램
2919	거실	술을 마시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7722	식당	창밖을 보고 앉는 카페 공간, 반려견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2971	거실	함께 일하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7755	거실	홈바로 활용	새로운 프로그램
2971	방	홈집 + 포토존	새로운 프로그램	7840	거실	갤러리 같은 거실, TV대신 영화를 보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3057	방	홈카페로 사용, 함께 그림 그리고 책읽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7840	방	취미방 -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3057	방	게스트룸	새로운 프로그램	7840	방	취미방 -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새로운 프로그램
3077	방	작업실 겸 옷방	새로운 프로그램	9398	방	거실과 연계된 서재, 그림을 그리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3099	거실	홈카페, 누워서 TV를 보고싶음	새로운 프로그램	9402	방	촬영실	새로운 프로그램
3099	방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작업실	새로운 프로그램	9418	방	홈카페를 위한 방, 포토존	새로운 프로그램

9421	주방	홈카페	새로운 프로그램	1706	방	소파에서도, 침대에서도 TV를 보고싶다.	실의 맞춤화
9480	거실	빈티지 제품을 수납, 전시하는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1727	식당	넓게 쓰는 공간	실의 맞춤화
9480	방	방을 거실로 활용, 홈카페	새로운 프로그램	2154	주방	여백을 최소화	실의 맞춤화
9480	방	침실에 작업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2727	거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영화 보고 여유로운 시간	실의 맞춤화
9493	방	게임방	새로운 프로그램	2727	식당	넓게 쓰는 공간	실의 맞춤화
9493	방	홈카페, 홈바	새로운 프로그램	2737	거실	남편, 손님과 테이블에서 대화, TV 적게 보는	실의 맞춤화
9504	거실	북카페 거실	새로운 프로그램	2772	식당	부부의 역사가 담긴 공간	실의 맞춤화
9504	방	플로리스트, 홈가드닝을 위한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2872	거실	아무것도 없는 미니멀한 공간, 뒹굴거리며 멍	실의 맞춤화
9504	방	작업실, 취미방	새로운 프로그램	2919	식당	나란히 앉아서 식사, 조리를 하며 손님을 대접	실의 맞춤화
9504	식당	홈바	새로운 프로그램	2940	거실	TV 없이 책, 신문을 읽고 대화하는 공간	실의 맞춤화
9640	방	침실은 작업실, 드레스룸으로 사용	새로운 프로그램	2940	식당	넓은 테이블에서 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냄	실의 맞춤화
9734	거실	홈카페, 포토존	새로운 프로그램	2944	거실	이야기하는 공간	실의 맞춤화
9888	거실	오브제를 전시하는 갤러리 같은 집	새로운 프로그램	2944	식당	비를 보는 공간	실의 맞춤화
9888	거실	홈카페 같은 공간, 작업실	새로운 프로그램	2971	방	책을 보며 잠드는곳	실의 맞춤화
9888	방	남편을 위한 취미방	새로운 프로그램	2971	주방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집에서 가장 중요	실의 맞춤화
9888	방	고양이를 위한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2997	방	평소 생활방식을 반영해 열린 공간	실의 맞춤화
10041	거실	거실은 얼굴, 위로, 아늑함, 따뜻함, 홈캠핑	새로운 프로그램	2997	식당	거실과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	실의 맞춤화
10041	방	침실에 포토존	새로운 프로그램	2997	주방	주부만의 공간	실의 맞춤화
10124	방	취미 공간	새로운 프로그램	3057	거실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실의 맞춤화
1635	주방	거실과 분리된 주방	실의 맞춤화	3063	거실	탁 트인 뷰를 중심으로 한 공간	실의 맞춤화
3063	방	마루 공간, 거실을 향해 트여있는 아늑한 공간	실의 맞춤화	9418	거실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공간	실의 맞춤화

3075	식당	다이닝 테이블에서 책도 읽는 공간	실의 맞춤화	9418	방	예민한 나를 위해 수면에 최적화된 공간	실의 맞춤화
3077	거실	취고 손님을 맞이하는 넓게 쓰는 공간	실의 맞춤화	9421	방	정글같은 침실	실의 맞춤화
3079	거실	가구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싫다, 와서 생활	실의 맞춤화	9421	식당	여러 사람이 와도 즐길 수 있는 공간	실의 맞춤화
3079	식당	식탁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실의 맞춤화	9493	거실	넓게 함께 즐기는 공간	실의 맞춤화
3090	방	대부분의 생활을 침대에서	실의 맞춤화	9493	식당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실의 맞춤화
3133	거실	남편과 대화하며 책보고 음악감상 하는 공간	실의 맞춤화	9504	주방	넓게 쓰는 주방	실의 맞춤화
3170	식당	신랑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오픈키친을 선택	실의 맞춤화	9640	거실	주로 생활하는 공간, 고양이와 함께하는 공간	실의 맞춤화
3188	주방	거실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	실의 맞춤화	9640	주방	거실과 분리된 주방, 요리를 잘 하지 않음	실의 맞춤화
3220	주방	거실과 분리된 주방	실의 맞춤화	9888	식당	밖을 보면서 식사	실의 맞춤화
3475	거실	창밖을 보며 멍하게 보내는 시간, TV 없이	실의 맞춤화	9888	주방	수납과 조리대 위주의 공간	실의 맞춤화
3623	식당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실의 맞춤화	10041	식당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을 즐김	실의 맞춤화
5952	방	캠핑 텐트처럼 아늑한 침대	실의 맞춤화	10041	주방	제일 중요한 공간, 홈카페 꾸미기	실의 맞춤화
5952	주방	수납 중심의 공간	실의 맞춤화	2842	식당	다이닝은 거실로 빼고 수납공간으로 활용	교차와 통합
7363	거실	집에서도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실의 맞춤화	2872	방	방을 식당으로 활용, 손님과 함께 식사	교차와 통합
7722	거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	실의 맞춤화	3075	거실	창고를 겸하는 공간,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교차와 통합
7840	식당	거실과 복도를 구분하는 공간	실의 맞춤화	1712	거실	주방을 거실로 이동	교차와 통합
7906	거실	강아지와 함께하는 공간, 오션뷰	실의 맞춤화	1712	주방	드레스룸으로 변경	교차와 통합
9398	거실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는 공간	실의 맞춤화	2154	거실	TV없이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	교차와 통합
9402	거실	기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공간	실의 맞춤화	2772	방	드레스룸으로 활용	교차와 통합
10124	거실	부부가 대화하는 공간	실의 맞춤화	3623	방	작은 방은 옷방이면서 파우더룸	교차와 통합
10124	방	알파공간 : 휴식을 위한 공간	실의 맞춤화	7363	방	방이 필요한 것 보다 많음, 거실과 합침	교차와 통합



10124	주방	거실과 마주보는 대면형 주방	실의 맞춤화	7755	방	거실이 좁아서 침실을 거실처럼 활용	교차와 통합
3220	거실	넓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싶다	교차와 통합	7906	방	숨은 공간 : 작은 거실	교차와 통합
3295	방	침실이면서 거실이고 다이닝이자 컴퓨터방	교차와 통합	1635	식당	주방을 사용하지 않아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다	교차와 통합
3379	거실	남편은 일하고 자신은 드라마를 보는, 식사	교차와 통합	2737	식당	다이닝 공간을 최소화하고 거실에서 식사	교차와 통합
3379	방	동선이 편한 드레스룸	교차와 통합	3090	거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은 공간, 비워둠	교차와 통합
3390	거실	식당을 넓게 사용하고 싶어, 거실을 식당으로	교차와 통합	3494	주방	집에서 밥을 잘 안해먹음, 사용하지 않음	교차와 통합
3390	방	거실로 사용	교차와 통합	3734	주방	거실을 넓게 활용하고자 비워둠	교차와 통합
3475	방	서재와 드레스룸으로 활용	교차와 통합	9402	식당	거실과 테라스에서 다이닝, 비워둠	교차와 통합

## 5.1. 주거의 역할을 재정의 : 새로운 프로그램

앞서 선행연구에서 파악했듯,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침실, 거실, 식당, 주방, 화장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공간은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고유한 역할(프로그램)을 가진다.(표 3)과 2.2.3. 아파트에서의 축소된 일상과 일반화된 장소성 참조) 하지만 온라인집들이에서 공간을 재정의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거가 포함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타난다.(표 8) 참조) 특히 그 중에서도 홈카페, 홈바, 홈피씨방 등과 같은 여가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갤러리, 전시공간과 같은 수집, 전시 프로그램, 작업실과 같은 생산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더라도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공간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가구를 구입함으로써 주거 내부로 수용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sup>78)</sup>

그런데 이러한 주거에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주거가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주거의 역할을 벗어나도록 한다.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에서의 시선,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하거나(5.1.1. 공적경험 : 홈카페, 홈바, 홈캠핑, 홈PC방), 거주자의 생활보다 사물이 우선되도록 하거나(5.1.2. 객전도 : 갤러리, 전시공간), 재생산의 공간을 생산의 공간으로 만든다(5.1.3. 직주통합 : 작업실, 집무공간).

---

78) 인터넷 쇼핑물을 통한 광범위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다수의 사용자 사이에서 공유됨으로써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범위가 증가하였다. 온라인집들이에서는 당구대, 캠핑용품, 업소용 냉장고 등의 제품들이 주거 내부에 설치되고 구입처가 공유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정 공간을 가야만 접할 수 있었던 제품들이 주거 내부에 설치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현된다.

### 5.1.1. 공적경험 : 홈카페, 홈바, 홈캠핑, 홈PC방

온라인집들이에서 주거가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경우, 공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주거 내부로 끌어들이는 사례들이 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홈카페’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인 카페(Cafe)가 주거 내부(Home)에 적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카페라는 프로그램이 주거 내부로 들어오면서 주거가 사적 공간인 만큼 타인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커피를 만드는 공간으로써 커피머신과 각종 커피용품,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써 테이블과 의자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홈카페를 주거에 적용하게 된 이유로는,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함’의 개인적 성찰과 ‘집에 계속 머물고 싶음’의 개인적 성찰이 함께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카페를 가는 것에 있어서 ‘카페 분위기’, ‘음악을 들으면서’, ‘사진을 찍음’이 주된 동기로 나타난다. 이는 카페가 집과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집과 대비되는 요소는 분위기와 음악, 사진찍기 등의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재정의된 홈카페는 주거 내부에서 주거 외부의 카페와 같이 공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공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분위기, 음악, 사진찍기의 요소들을 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주거를 홈카페로 재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이미지나 공간의 구성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홈카페“ 저희 부부는 카페에서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반려견이 생기면서 셋이 함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향, 조명, 배치를 활용해서 카페 같은 집을 꾸며보았습니다. 거실도 카페처럼 꾸미고 싶어서 발코니 확장 공간에 커피머신 수납장을

제작했어요. 업체와 미팅하면서 참고 사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스타일로 시공해주셨어요. 홈카페 분위기를 높이는 공간입니다. (중략)

카페 같은 아지트를 꾸미고 싶다는 마음을 이 집에 원 없이 담았어요. 평소엔 밖에서 남편이나 친구들과 커피를 즐길 수 있지만, 언젠가 육아를 하게 된다면 그런 일상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간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7722) 79)

위 사례에서는 카페 가는 것을 즐기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반려견에 의해 밖을 나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충돌함을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쓴이는 집에 홈카페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식당과 거실, 테라스에 걸쳐 넓은 공간을 홈카페로 재정의한다. 이후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을 통해 글쓴이는 ‘카페 같은 집’, ‘홈카페 분위기를 높이는 공간’, ‘카페 같은 아지트’를 획득했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카페’라는 단어가 특정한 분위기를 상징함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주거 외부의 공적 공간이 주는 경험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사진을 통해 보면, 가지런히 정돈된(인위적으로 배치된) 물건들과 부분적으로 강하게 비추는 조명, 고가의 음향 장비가 홈카페를 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이러한 사실은 위 사례에서, 육아를 하게 되면 밖에 나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카페처럼 만들고 싶다고 마지막에 밝히는 것을 통해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다.

---

79) 은은한 조명 아래 카페 같은 부부의 아지트, 2018년 11월 19일 13:05, (<https://ohou.se/projects/7722/detail>)



〈그림 9〉 홈카페의 사례 (7722)

평소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집에서도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더라고요. 최근에는 베이킹 도구들을 구매해서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보고 있어요. 아직 초보라 잘하지는 못하지만 잠이 안 오는 새벽이나 고요한 낮에 음악을 들으며 베이킹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마음도 정돈되고 차분해져서 저절로 마음 정화가 되는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사진 찍는걸 좋아해서 플레이팅을 한 후 서로의 카메라에 꼭 사진을 담아요. 예쁘게 차린 음식을 예쁘게 담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커피향과 과일 향, 빵을 굽는 향이 맴도는 순간이 제일 좋아요. 틈틈이 커피를 내리거나 디저트를 만들어 나만의 홈 카페를 즐겨요. 주말에 느긋하게 즐기는 홈카페는 일주일 피로를 싹 씻어줘요. 커피는 주로 남편이, 디저트는 제가 만들어요. 모카포트, 핸드드립, 커피머신 등 여러 종류의 커피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예쁜 커피잔과 디저트 접시에 더 관심이 많아서 눈여겨보고 있어요. (9734) 80)

80) 부지런히 정돈하며 살피는 재미, 2019년 03월 19일 10:05,  
(<https://ohou.se/projects/9734/detail>)

위 사례에서도 평소 카페에 가는 것을 즐기는 생활방식과 집에서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요구가 충돌한다. 반면 홈카페를 만들기 위해 커피용품을 구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주거공간을 가꾸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대신 직접 디저트를 만들고 그것을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행위와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카메라로 찍는 행위가 홈카페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요소로 제시된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겠지만,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공적 시선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카페에서의 공적 경험이 타인을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때, 사진 찍는 행위를 통해 공적 시선을 주거의 홈카페 공간으로 끌어들이으로써 거주자는 공적 경험을 한다고 할 수 있다.<sup>8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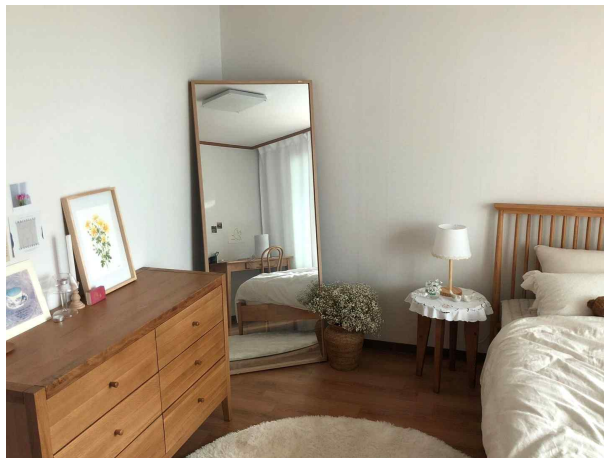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할만한 경향은 주거 내 특정 공간을 포토존으로 정의하는 사례인데, 기존의 사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주거에 공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포토존에서는 자신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배치한다. 이때 사진을 찍기 좋도록 특정 각도를 향해 물건들을 배치하거나 거울을 활용해 자신을 사진에 함께 넣으면서 방의 건너편까지 더 다양한 물건들을 사진 속에 담는다. 포토존을 위해 놓인 물건들은 물건 자체의 용도 보다는 자신의 취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

81) 홈카페와 비슷한 또 다른 재정의 사례로 홈바가 있다. 프로젝트 번호 9493에서는 홈바는 술집(Bar)을 주거 내부(Home)에 적용한 것으로, 홈카페와 유사하게 술을 만드는 공간과 술을 마시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홈카페와 마찬가지로 바(Bar)의 분위기가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어두운 공간에 독특한 조명을 사용한다. 완전히 홈바로써 독립된 공간을 할애한 사례도 있었으나 기존의 주거 공간에 단순히 조도를 조절함으로써 홈바의 분위기를 획득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홈바도 홈카페와 마찬가지로 주거가 포함하지 않는 주거 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개념으로써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되고 있음을 물건들의 모순적인 배치나 문장 속에서 묘사되는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융합미디어가 우리의 주거 내부로 공적 시선을 끌어들이므로써, 물건이 가지는 상징적 기호를 통한 새로운 자아표현의 방식을 보여준다.<sup>82)</sup>

침실에 있는 서랍장 위부분에는 모아둔 예쁜 그림과 소품들을 올려두고 있어요. 방문에서 들어와서 침실을 바라본 방향이에요. 모서리에 거울을 뒤서 좀 더 넓은 공간 표현을 시도해봤어요! 저의 포토존이기도 하고요 :-) 거울에 비친 것처럼 침대 앞쪽에는 책상이 있어요. 저는 제 취향대로 소품을 리폼하곤 하는데, 어느 날 스탠드를 보는데 밋밋해 보여서 레이스를 사서 스탠드에 붙여버렸어요. 이제야 꼭 내 것이라 싶은 스탠드의 모습이에요. (10041) <sup>83)</sup>



〈그림 10〉 포토존의 사례 (10041)

82) 허은석, 선택행위를 통한 자아확립의 매개로써 현대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9

83) 꼭 닮은 두 사람의 로맨틱 빈티지 '네모', 2019년 03월 30일 12:19, (<https://ohou.se/projects/10041/detail>)

글쓴이는 포토존이라는 개념으로 침실의 일부를 정의한다. 실제 사용성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구를 리폼하고 소품으로 장식한다. 거울을 통해 집의 더 많은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의도했음을 언급한다.

조명은 신혼여행 중 코펜하겐에서 주어진 저에게 소중한 예쁜 쓰레기입니다 ㅋㅋ 이걸로 남편이랑 얼마나 많이 다뤘는지 골드 프레임 유리 선반도 코펜하겐 여행 중 빈티지샵에서 구매했는데.. 한번 빠지면 무조건 사야 하는 제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정말 많이 고생했죠 ㅎㅎ (중략)

틈만 나면 집 사진 업데이트 하면서, 위치도 바꾸고 화병에 꽃도 채우며 샵에 있는 식물도 집으로 가져오곤 했죠 ㅎㅎ “저에게 집은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공간 한 공간이 포토존이 될 만큼 매일 꾸미고 가꾸는 이상 실현의 공간이죠.” (7379) 84)

위 사례의 글쓴이는 주거의 모든 공간이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을 통해, 글쓴이에게 포토존은 잘 가꾸어진 공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집을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자신에게는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써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취향을 보여주기 위해 물건을 배치하는 것을 ‘예쁜 쓰레기’ 85)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언급을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주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84) 쇼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파트 인테리어, 2018년 10월 11일 18:35, (<https://ohou.se/projects/7379/detail>)

85) 실용성은 없지만 감성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감각적인 디자인이나 특유의 감성을 가진 제품을 ‘예쁜 쓰레기’라고 부른다.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집들이에서 주거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를 재정의한 사례 중에는 홈캠핑이라는 개념도 종종 등장한다. 캠핑이 야외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으로 집에서의 생활과 대조적인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홈캠핑으로 공간을 정의한 사례의 경우 주거 내부를 외부와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을 사용한다. 인조잔디를 설치하거나 많은 화분을 설치하는 등 기존의 주거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야외와 같은 공간에 실제 캠핑용품이나 캠핑용품과 유사한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한다.

*베란다 캠핑공간은 결혼 전부터 남편과 함께 구상 했던 공간이었어요. 이 베란다는 나중에 우리가 지긋한 나이가 됐을 때 잔디가 있는 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마당에서 바베큐를 즐기는 그런 날을 꿈 꾸는 저희 부부의 바람이 깃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집의, 아주 작은 베란다 공간이지만 잔디로 인해 4계절 내내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선선한 날 베란다에서 즐기는 파티는 마치 야외에서 즐기는 캠핑과도 같은 즐거움이 있어요. 평소에 먹던 음식도 베란다로 가지고 나가면 2배로 맛있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2567)*

86)

캠핑을 즐겨하는 글쓴이의 바람을 담아 글쓴이는 베란단을 홈캠핑 공간으로 재정의한다. 이를 위해 베란다 공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외부의 느낌을 내고자 하였으며, 캠핑의자와 캠핑테이블을 두었다. 홈캠핑 공간에서 먹는 식사는 야외에서 즐기는 것과 같다고 하

---

86) 홈카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신혼집, 2016년 11월 06일 21:59, (<https://ohou.se/projects/2567/detail>)

며 다이닝에서의 식사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림 11〉 홈캠핑의 사례 (2567)

홈캠핑의 경우 또한 주거 외부의 프로그램을 주거 내부로 들임으로써 주거 외부에서의 경험을 주거 내부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87)</sup> 하지만 홈캠핑은 홈카페나 홈바처럼 공적 경험, 공적 시선과 관련되어있기 보다는 실내 공간과 대비되는 야외 공간의 경험을 주거 내부로 끌어들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거가 사용하지 않았던 인조잔디, 거대한 식물, 캠핑장비와 같은 요소들이 주거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다.

---

87) 프로젝트 번호 3437의 사례에서는 글쓴이가 거실에서 생활하면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난방텐트라는 제품을 사용해 홈캠핑을 즐기는 과정이 소개되는데, 거실에서 취침하고 식사하고 생활하는 글쓴이의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거실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넉넉하게 텐트를 설치하고 홈캠핑공간을 구성한다. 홈캠핑공간은 야외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남편은 맥주 킬러에 게임광이에요. 저희 두 사람의 취향이 반영된 신혼집을 소개합니다. (중략)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남편 게임방이 있어요. 원래는 밝은 마루였는데 방염 타일 카페트를 깔았어요. 어두운색이라 방이 좀 더 아늑해진 것 같아요. 발이 찬 남편도 맨발로 잘 다닐 수 있고 머리카락이 눈에 덜 띄어서 좋아요. 잦은 외식으로 배인 고기냄새와 흡연자 남편 때문에 꼭 필요한 LG 스타일러는 드레스룸 대신 자주 드나들고 눈에 띄는 공간에 설치했어요. 미니 당구 게임기를 샀어요. 집돌이인 남편과 상품을 걸고 이길 때까지 내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PC 게임에 흥미가 없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임을 찾던 중 발견한 근사한 게임기예요. 포켓볼 내기에서 승리해 얻어낸 아이스하키 게임기! 바람이 나와서 스피드 있는 게임이 가능해 땀이 날 때까지 치게 되는 것 같아요. (9493) <sup>88)</sup>

온라인집들이에서 주거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취미방이 있는데, 그 중 홈PC방을 만든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때 홈PC방은 PC를 중심으로 구성된 게임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PC방처럼 음식, 음료를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설비들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공적 공간에서의 경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홈카페나 홈바의 경우, 커피나 술을 마시는 행위가 단순히 혼자만이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묘사된다. 이를 위해서 음식을 예쁘게 세팅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는 공적 시선을 융합미디어 기기를 통해 주거 내부로 끌어들이는 행위이며 일종의 공적 경험을 하도록 한다. 홈캠핑의 경우 주거와 대비되는 야외 공간의 분위기를 집 내부에서 형성하기 위해

---

88) 꽃과 빈티지를 좋아하는 아내가 꾸민 아기자기한 신혼집, 2019년 03월 20일 10:05, (<https://ohou.se/projects/9493/detail>)

인조잔디와 식물, 캠핑장비를 활용한다. 홈PC방의 경우에도 단순히 게임을 위한 컴퓨터를 놓을 뿐 아니라, 간이냉장고, 과자선반 등을 놓아 PC방이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 등의 서비스를 주거 내부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5.1.2. 주객전도 : 갤러리, 전시공간

온라인집들이에서 주거가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경우 중에는, 거주자의 생활이 아닌 사물을 우선으로 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거주자 자신이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전시하는 것을 주거의 주요한 기능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간은 전시에 맞춰 부수적으로 결정한다.

미니 복도에는 앞으로 구매하게 될 그림이나 작품, 오브제를 전시하는 작은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복도의 길이가 사진상으론 짧아 보이지만, 약 2.9미터로 좋아하는 것들을 전시하기엔 충분한 공간입니다. (중략)

TV 대신 나만의 작은 갤러리. 원래 TV를 설치하는 공간엔 대형 그림과 모빌, 스피커를 설치해 TV의 허전함을 달랬어요. TV가 없는 집엔 주로 책장을 놓던데, 전 주로 E-BOOK으로 책을 봐서 책장이 필요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평수가 작아 책장은 처음부터 생각도 못 했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 거실의 중앙에 배치했어요. 음악과 그림, 그리고 명 때리기에 도움 되는 모빌이 저희 집 거실의 주인공입니다. 소파는 그림과 모빌을 바라보기 좋은 맞은편에 놓았어요. 그림과 오브제는 계절마다, 기분 따라 바꿔 놓으며 거실의 분위기를 바꿔줄 예정이에요. 키 높은 화이트 거실장을 놓고 그 위엔 거실의 메인 그림을 놓았어요. 그림 옆엔 향초나 화분, 조화 같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놓기 좋아요. (9888) <sup>89)</sup>

거실을 갤러리라고 정의하고 그림, 음악, 모빌, 소품 등을 부분조명을 활용하여 복도와 거실의 둘레로 전시한다. TV를 보지 않는 자신의 생활방식을 토대로 글쓴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거실에 전시하기로 한다. TV를 두지 않아 TV와 마주보는 위치에 소파를 둘 필요 없이 전시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맞춰 소파를 설치하고 전시물을 감상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가 해리포터 덕질<sup>90)</sup>에 흠뻑 빠져있는 것처럼, 남편은 중세 덕질을 합니다. 저희는 파이프, 녹슨 철, 묵직한 나무 등의 인터스트리얼을 좋아했지만 전셋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다 뜯어고치자니 전세라 시공비가 아깝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나무바닥+낮은 천장이라는 조건에서, 시공없이, 맘에 쏙 드는 제작 가구와 저희가 그동안 덕질해온 아이템만으로 인터스트리얼의 느낌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 디즈니와 해리포터에 미치고, 오빠 중세와 스팀펄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소품을 가져와서 배치할 때, 집 인테리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해리포터+중세만 밖에 내놓고 나머지는 모두 서랍에 키핑하기로 했어요 ..ㅋㅋㅋ 저 서랍속엔 그 교집합에 섞이지 못한 온갖것들이 박혀있죠. 해리포터에 중세의 느낌이 들어있어서 다행이지 뭐예요. (1706)<sup>91)</sup>

89) 습관과 취향, 사랑하는 것들로 그린 작은 집, 2019년 03월 27일 10:05, (<https://ohou.se/projects/9888/detail>)

90) 덕질이란 취향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에 파고드는 것을 말하며, 광범위한 대상과 행위를 포함한다. 위의 온라인집들이 사례에서는 해리포터, 중세와 관련된 물건들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91) 일하고 노는 유쾌한 신혼집, 2016년 02월 01일 00:00, (<https://ohou.se/projects/1706/detail>)

한편 위 사례의 글쓴이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된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집을 찾는 것을 염두에 둘 정도로 자신의 물건을 전시하는 행위가 주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공간으로 정의된 거실에는 전시를 위한 가구를 주문 제작하는데, 내부에 보관된 물건이 들여다보이며 물건의 크기에 맞춰 제작된 가구이다. 주거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놓인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거실의 테이블, 주방, 침실 등이 부수적으로 결정된다.



〈그림 12〉 전시공간의 사례 (1706)

모든 온라인집들이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공간을 꾸미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공간의 이미지와 구성에 어울리도록 소품들이 종속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갤러리, 전시공간으로 정의된 공간은 전체 공간구성, 가구, 색, 조명 등의 요소들이 전시되는 물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통상적인 주거가 거주자의 생활을 우선으로 모든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과 달리 사물을 위한 공간으로써 주거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5.1.3. 직주통합 : 작업실, 집무공간

온라인집들이에서 주거가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경우, 재생산의 공간으로써 주거가 아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정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주거에 서재가 책을 두고 읽거나 간단한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면, 온라인집들이에서 서재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작업공간의 개념은 실제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책상을 중심으로 글쓰이의 직업과 관련된 물건들이 전시되어있기도 하고, 실제로 거실에서 고객을 맞이하기도 한다.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의 경계가 모호해 같은 공간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휴식과 재생산의 공간으로써 통상적인 주거가 가지는 역할이 아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직접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거를 재정의한다. 샵하우스나 겸용주택의 경우가 아닌, 아파트에서 생산과 재생산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주가 통합되는 재정의 방식이 독특하게 다가온다.

*제가 플라워 아뜰리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꽃 작품들이 곳곳에 있어요. 항상 꽃으로 넘쳐나는 공간입니다. 식탁이든 침실이든 거실 테이블이든, 이제 꽃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매일매일 꽃으로 스타일링 된 장면을 마주할 수 있어요. 꽃과 식물만큼 계절을 잘 느끼게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희 집은 항상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9504) 92)*

---

92) 추억이 담긴 액자와 아끼는 식물들로 꾸민 신혼집, 2019년 04월 02일 10:05, (<https://ohou.se/projects/9504/detail>)



〈그림 13〉 작업공간의 사례

작년 말에 회사를 나와서 이 집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으로 프리랜서로 건축, 공간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거실은 사실 제 침무공간입니다. 좁은 거실의 1/3을 차지하는 2.2미터의 제 책상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 하나의 공간을 가구들이 기능적으로 분리해주고 있는데 책상을 경계로 뒤쪽은 서재, 그 앞쪽으로는 소파와 TV가 있는 거실, 그 옆으로는 신발장이 있는 현관이에요. 거실은 무채색의 바탕에 합판으로 만든 가구와 식물의 초록색을 이용해 생기를 불어 넣고자 했어요. (2772) <sup>93)</sup>

93) 프리랜서 공간디자이너의 철학을 담은 집 #24평, 2017년 02월 22일 20:05,  
 (<https://ohou.se/projects/2772/detail>)



## 5.2. 주거 내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 : 실의 맞춤화

또한 기존의 주거가 가지고 있던 공간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대신, 자신의 생활방식을 반영하여 공간의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일부를 수정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8〉 참조) 이 유형의 경우, 기존의 공간이 가진 명명은 그대로 따르되 기존 공간이 가진 특성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거실의 경우 거실이라는 명명은 그대로 사용하되, ‘TV를 보는 공간’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거부하는 대신 책을 보거나 대화하거나 손님을 대접하는 등의 다른 특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아파트의 기존 공간인 N, L, D, K를 기준으로 각 공간의 어떠한 특성이 수정되거나 새롭게 규정되었는지 비교해봄으로써 현재 아파트가 가진 한계점이나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 5.2.1. 침실

우선 침실의 경우 선행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취침행위와 개인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앞서 5.1.에서 침실을 취침행위와 개인생활 행위가 아닌 주거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재정의한 사례들도 볼 수 있었으나, 본 장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취침행위와 개인생활 행위가 이루어지는 침실의 일부 특성만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규정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침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것에 계획의 주안점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집들이에서는 침실을 열린 공간으로써 재정의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신혼부부 혹은 싱글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많지 않아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가 작기 때문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생활의 편의나 공간을 넓어보이고자 하는 요구가 침실을 열린 공간으로 재정의하도록 한다.

평소에 문을 열고 생활해서 거실이랑 욕실이랑 침실이 트여있도록 했어요. 침실 문은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책장 겸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잡지를 꾸르륵 진열해봤는데, 예쁘지 않나요? :) 슬라이딩도어는 가구공방에서 제작했는데, 여단을 때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서 좋아요. 방음도 잘 되는 편이고.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음으로 욕실과 파우더룸의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거실에서 보이는 욕실 문이에요. 작은 공간에 오밀조밀 잘도 모여있죠? :) 원래 현관부터 베란다까지 평면이었던 공간에 가벽을 세워 파우더룸을 만들었어요. 짜잔 ^.^ 화장실 세면대를 건식으로 쓰려고 밖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사선의 가벽을 세우고 파우더룸을 만들었어요. (2997) <sup>94)</sup>

위 사례의 경우 평소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생활방식에 맞춰 침실과 거실, 욕실 등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하도록 재정의 하고자 한다. 거실에 인접한 난방 분배기 공간을 세면대로 수정하고 그에 접한 욕실, 파우더룸, 침실을 슬라이딩 도어 하나만을 이용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슬라이딩도어는 평소 문을 열어놓고 지내도 문이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 선택한 장치이다. 이로 인해 거실에서 욕실과 파우더룸을 거쳐 침실까지 하나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좁았던 집이 넓어 보이면서도 공간이 구분되어있는 효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

94) 컬러와 구조가 눈에 띄는 24살 아파트 #16평, 2017년 06월 30일 19:05, (<https://ohou.se/projects/2997/detail>)



〈그림 14〉 열린 침실의 사례 (2997)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 드린 마루 공간이에요. 이 마루는

1. 진짜 마루를 꺾 넣어 (높이 440mm로 평균적인 의자 높이) 아주 긴 거실창의 시티뷰를 조망하기 좋게

2. 진정한 의미의 리빙룸

3. 마루 앞, 천정공사 때 스크린을 넣을 홈을 파내어 스크린을 설치. 스크린을 내리면 마루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단독 극장 탄생! 후암극장!

4. 침실을 제외하고 방을 다 없앴 우리의 계획을 조금은 커버해 줄 게스트룸 (룸이라기 보다는 스페이스)

정도의 건축과 인테리어 사이 영역의 디자인적 의미가 있어요. (3063) <sup>95)</sup>

95) 오랜 것의 매력, 건축가부부의 43살 아파트, 2017년 08월 03일 14:58,  
(<https://ohou.se/projects/3063/detail>)

위 사례에서 침실은 벽을 제거하여 거실을 향해 완전히 트여있다. 거실에 소파와 TV를 두지 않고 커다란 책상을 두어 작업공간과 다 이닝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인접한 침실이 거실이 담당하던 휴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벽이 없이 완전히 트여있지만 바닥의 마루를 활용해 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완전한 거실의 일부가 아닌 거실과 연계된 방으로써 정의하였다. 글썽이는 침실에서 거실 너머로 보이는 경치를 보거나 스크린을 내려 영화를 보는 등 거실과 연계된 침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침실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맞춰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침실이 취침행위와 관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취침과 관련된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공간을 재정의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잠들기 전에 책을 읽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 침실의 정의를 확장하거나, TV를 보면서 잠들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좁은 공간에서 잠이 더 잘 드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대 크기에 맞춰 방을 작게 나누기도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침실을 채우기도 하고, 잠에 집중하기 위해 침대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인 침실은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꾸미고 싶었어요. 침실의 한쪽 벽에는 그 동안 읽은 책들이 꽂혀져 있는 책장을 뒤서 잠들기 전에 책을 꺼내 읽기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베이지와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 밝게 꾸민 거실과는 다르게 침실은 다크 네이비를 사용해 무겁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했어요. 액자에는 우리 부부가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셀프 스냅사진을 흑백으로 프린트해서 넣어뒀어요. 직접 시공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더 애착이 가네요. (2971) 96)*

96) 신랑의 취향과 내 취향을 모두 담아, 24평 신혼집, 2017년 06월 13일 20:05,

작년부터 하나둘 키워 온 식물들을 겨울이 되어 안방으로 옮겼더니 침실이 정글이 됐네요. 집에서 식물 키우는 건 제 담당인데요. 여름에 폭풍 성장할 때는 하루가 다르게 식물들이 변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생활하다 보면 불편하거나 더 활용하기 좋은 쪽으로 가구 배치라던지 소품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침대 발 밑과 오른쪽으로 이렇게나 많은 식물들이 모여 있답니다. 봄-가을까지는 식물들이 원래 베란다에 있었는데 겨울이라 방으로 옮겨진 거고요. (9421) 97)

### 5.2.2. 거실

선행연구에서 거실의 경우 가족단란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공간이며, 개인생활, 접객행위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거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낮은 심도를 가지고 동선의 주요 통로로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집들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거실과 관련된 특성은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소파와 TV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거실의 소파와 TV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배치는 아파트가 가지는 획일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써 많은 사례에서 언급되고 있었으며,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거실의 명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실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사례는 대부분 TV를 없애는 대신 가족단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를 자신의 생활방식에서 찾아내어 적용하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었다.

TV 보는 시간이 극히 드문 부부이기에 저희는 소파를 창가 쪽으로 돌리고 빈티지 가구들이 돋보이는 구조로 바꿨어요. 소파

---

(<https://ohou.se/projects/2971/detail>)

97) 작은 집도 전셋집도 예쁘게 꾸밀 수 있어, 2019년 03월 22일 10:05,

(<https://ohou.se/projects/9421/detail>)

에 앉으면 TV 대신 이 뷰(?)가 보여요. 저희는 둘 다 집에 오면 TV를 잘 안 틀어요. 효리네민박이나 윤식당 같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는 시간에만 TV를 키죠. 그래서 소파에서 쉬는 동안 눈 앞에 펼쳐지는 뷰(?)가 이 모습인 게 저희에겐 더 맞는 것 같아요. TV를 안 키는 대신 음악은 거의 항상 틀어두고 있어요. (3475) 98)

위 사례에서는 TV를 잘 보지 않는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해 고민하면서, 소파와 TV가 마주보는 일반적인 거실의 배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TV보다는 음악을 더 많이 듣는 생활방식에 맞춰 스피커를 구입하고, 소파는 TV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들을 바라보도록 배치한다. TV를 보는 거실이 아닌, 가구에 앉아 서로 이야기하거나 창밖을 보는 것으로 거실로 재정의함으로써 글쓴이는 자신의 거실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한다.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을 하게 되면 거실에 큰 테이블을 두고 생활하고 싶었어요. 스타벅스에 있는 큰 테이블이 멋져 보였던 것도 있고 소파가 있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것 같았거든요. 큰 테이블을 두면 남편과도 부모님께서 오셔도 친구들이 와도, 테이블을 두고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직 학생이라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보는 일이 많은데 방에서 혼자 하는 것 보단 거실에 같이 있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 친구들이 왔을 때 넓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테이블에서 보내고 손님들 왔을 때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2737) 99)

---

98) “집을 이렇게나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2018년 02월 26일 20:05, (<https://ohou.se/projects/3475/detail>)

99) '지금'의 우리집에 애정을 갖고 #30평 #홈스타일링, 2017년 02월 03일 19:35, (<https://ohou.se/projects/2737/detail>)



〈그림 15〉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란의 거실 (2737)

위 사례의 글쓴이는 대부분의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생활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신 카페에서 본 큰 테이블을 거실의 중간에 둬으로써 거실을 TV보는 공간이 아닌 대화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다목적의 공간으로 재정의한다. 테이블이 주인공이 되도록 거실의 한가운데에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소파도 두지 않는다. 글쓴이의 의도대로 거실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가족단란행위와 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격의 거실로 재정의된다.

거실은 서재 겸 작업실로 겸 다이닝룸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소파와 TV가 있는 전형적인 거실은 원하지 않아서 테이블과 책장을 뒀어요. 테이블에선 주로 그림을 그리고, 어떨 땐 작업도 합니다. 물론 식사도 이 곳에서 합니다. 저는 책 욕심이 많은 편인데요, 그렇다보니 항상 정리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시스템 선반은 사이즈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다가 물건이 꼭 차면 선반을 추가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 (중략)

TV는 벽을 차지하니까 인테리어에 제한이 많은데 빔프로젝터는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게다가 빔프로젝터는 낮에도 암막커튼을

*치면 잘 보일 정도로 선명하고 가성비도 좋아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3494) 100)*

위 사례의 글쓴이도 TV가 있는 거실은 전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TV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거실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다용도의 공간으로 정의하는데 그림, 작업, 식사, 책, 빔프로젝터, 전시 등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정한다.

위 사례와 같이 거실의 정의를 특정하지 않고 다목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거실이 다양한 기능의 가족실로써 기능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온라인집들이의 일부 사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공간으로써 거실을 재정의하고 따라서 고정된 기능이 없는 다목적의 공간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연출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 가구 배치나 패브릭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다. 우리 집의 특이한 점은 거실에 놓인 많은 테이블입니다. 집 구조상 공간이 세밀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구 배치로 공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중략)*

*이것으로 우리 집 소개를 마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자 자신의 개성이 담겨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감성도 변화되고요. 가구는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해야 하기에 아이템을 매치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저의 인테리어 철학입니다.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 가구도 무언가를 걸칠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9402) 101)*

---

100) 폭풍 갑던 공사를 끝내고, 나를 닮은 공간 완성!, 2018년 03월 08일 20:05, (<https://ohou.se/projects/3494/detail>)

101) 집도 무언가를 걸칠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2019년 03월 28일 10:05, (<https://ohou.se/projects/9402/detail>)



위 사례의 경우 거실에 서로 다른 성격의 테이블을 6개나 두어 상황에 따라 다른 테이블을 이용하고, 각각의 테이블도 계절이나 유행에 따라 계속해서 다르게 꾸며주는 것으로 설정한다. 글썸이에게 거실은 계속해서 꾸미고 바꾸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공간으로, 따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도록 정의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의한다. 이를 자신의 주거를 열심히 가꾸고 기획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써 거주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주거에 대한 기획은 시각적인 연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자신의 만족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또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다목적의 거실 (9402)

혹은 반대로 아무런 물건이나 용도를 두지 않는 공간으로 거실을 정의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자리잡은 미니멀 라이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짐만을 두고 생활하는 사례들이다. 미니멀한 공간으로 거실을 정의한 사례의 경우 대부분 작은 집을 최대한 넓어보이기 위함이었으며, 접이식 가구를 활용하여 가변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소파나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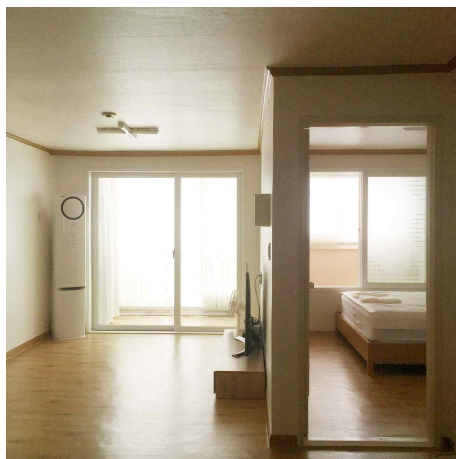
없이 바닥에서 생활하며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실을 활용한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아파트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따라 완전히 거실을 비우는 재정의마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어떤 날, 제 방인데 답답하다고 느껴지더라구요. 그 땐 미니멀이니 맥시멈이니 하는 것도 몰랐을 때였죠. 그렇게 버리고 정리하던 중에 '미니멀'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는 물건을 보면서 제가 왜 제 방에서 답답함을 느꼈는지 해답을 찾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신혼집을 꾸려나가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내 방 같지만 았다면 얼마든지!”라는 답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집이 작기 때문에 커다란 가구를 둘 수도 없고, 두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저나 남편이나 바닥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 소파가 없어도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거실에 눕는 것도 좋아하고요. 넓은 공간을 위해 접이식 가구를 선택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나와있는 가구가 없는 덕분에 청소가 수월해져서 정말 좋았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3079) 102)

---

102)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우리에겐 가장 좋은 집, 2017년 08월 11일 19:05, (<https://ohou.se/projects/3079/detail>)



〈그림 17〉 미니멀한 거실의 사례 (3079)

### 5.2.3. 식당, 주방

온라인집들이의 사례들에서 식당과 주방은 그 구분이 모호한 사례가 많아 함께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식당의 경우 가족단란행위, 식사행위, 접객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주방은 식사행위와 가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되었다. 식당의 경우 거실과 주방의 중간에 위치해 두 공간과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주방의 경우 가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동선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시각적으로 개방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많은 연구에서 주장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집들이에서 식당과 주방의 개방성과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 분리된 주방을 개방적으로 재정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개방적인 주방을 분리되도록 재정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식당이나 주방을 거실과 분리시키는 사례들은 가벽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두 공간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가구의 경계를 확실히 하여 서로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식당이나 주방을 거실과 분리시키는 사례들은 주부만의 독립된 공

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작은 집을 넓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작은 집에서 각각의 공간을 원래의 용도대로 알차게 쓰기위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온라인집들이에서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작은 집을 넓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사례와 공간을 오픈하는 것이 작은 집을 넓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사례가 상반되지만 함께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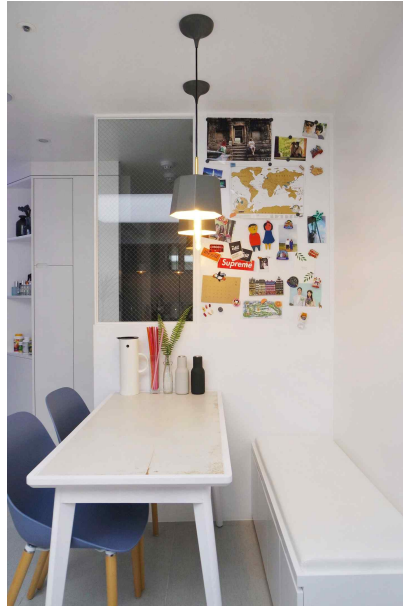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인데요. 가벽을 세워서 거실과 주방을 분리해줬어요. 가벽 부분에는 식탁 공간이 있는데요. 식탁과 고정 의자는 제작한 가구예요. 저희 부부는 여행 다니며 마그넷 수집하기가 취미인데, 이 철제벽에 그동안 모아온 마그넷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벽이 더더 가득차는 날이 오겠죠? (2997) 103)*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실이 안방과 같은 정도로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거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주방이되 조리대는 넉넉하게 꼭 있어야 한다는 큰 틀의 계획을 잡았어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서 거실로 오는 길에 주방이 있는 구조인데 상부장을 하게 되면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올 때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상부장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주방에 허물 수 없는 기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애물단지 기둥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 많았죠. 정말이지 주방은 인테리어 실장님과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한 공간이에요. 쩐! 미니멀 한 스타일의 주방으로 변신했어요. (3188) 104)*

---

103) 컬러와 구조가 눈에 띄는 24살 아파트 #16평, 2017년 06월 30일 19:05, (<https://ohou.se/projects/2997/detail>)

104) 20년 넘은 복도식 아파트를 부부의 아지트로., 2017년 10월 24일 22:34, (<https://ohou.se/projects/3188/detail>)



〈그림 18〉 분리된 주방의 사례  
(3188)

반면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식당과 주방을 거실과 오픈하여 연계하는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픈하는 사례들의 경우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가족 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오픈하기도 하지만, 앞서 분리하는 사례와 같이 작은 집을 넓게 보이기 위해서 오픈하기도 한다.

소형 아파트이기에 오픈키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벽을 허물고 주방과 거실을 합체, 오픈키친을 만들자! (중략)  
이전에는 미닫이문과 벽체로 주방과 침실로 분리되어있던 공간이에요. 왼쪽으로 돌면 거실과 주방을 분리시키는 벽체와 미닫이문이 있(었)어요. 과감하게, 허물기로! 거실과 주방 사이에 냉장고 있어서 미관상으로나 동선상으로 불편하겠더라고요. 냉장고 위치는 무조건 바꾸기로! 거실에서 정면으로 주방을 바라본 뷰입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던 냉장고는 주방에 합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3170) 105)

인테리어 포인트 하나.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저희 부부는 서로 엄청나게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하루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하기 위한 인테리어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남편은 주방이 꼭 대면형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한 명이 요리를 하거나 혼자 설거지를 할 때 심심하지 않게 창밖이나 TV를 볼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시 싱크 배수관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지금의 거실과 마주보는 대면형의 주방을 만들 수 있었어요. 둘이 같이 요리할 때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주방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제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설거지할 때에도 한 명은 소파에 앉거나 바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대면형 구조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10124) 106)

---

105) 건축가+디자이너 부부의 19평 신혼집 인테리어 1탄, 2017년 10월 21일 19:05,  
(<https://ohou.se/projects/3170/detail>)

106) 반셀프인테리어로 탄생한 머무르고 싶은 집, 2019년 04월 02일 10:05,  
(<https://ohou.se/projects/10124/detail>)



〈그림 19〉 연계된 주방의 사례 (10124)

위 사례의 경우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픈 키친으로 주방을 재정의한 점에서는 기존의 아파트가 가진 장소성과 유사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수정하여 오픈 키친을 강화하였다. 서로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가치관에 따라,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거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부엌의 안쪽을 향해있던 수전과 화구가 거실을 향하도록 재배치하였다. 그 결과 거실과 주방 사이에 거대한 아일랜드가 생기고, 한명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거실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 5.3. 주거의 물리적 구성을 재정의 : 교차와 통합

글쓴이가 파악한 각 공간이 가진 크기나 위치, 형태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공간을 자신의 생활방식을 비교하여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주거 내의 다른 기능으로 바꾸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표 8〉 참조) 온라인집들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공간의 교차

혹은 통합은 방과 거실을 교차 혹은 통합하는 경우, 그리고 식당과 거실을 교차 혹은 통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공간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나거나, 가변적으로 공간을 구성해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5.3.1. 방과 거실의 교차 혹은 통합

온라인집들이에는 침실로 명명된 공간을 거실로 재정의하여 일반적인 거실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볼 수 있다. 혹은 거실과 침실을 구분 없이 사용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난다.

*그런데 매번 접이식 식탁을 접었다 폈다 하고, 식사 때마다 옮기는 게 번거로워서 식탁 위치를 침실 겸 거실로 옮겼습니다. 옮겨 온 테이블은 이 곳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접어둬서 최대한 좁은 짐이 복잡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작은집이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이 이케아 노르덴 접이식 식탁이 공간활용에 유용한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어요. 집에 소파가 없는 관계로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잘 때도, 쉴 때도. 대개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3295) 107)*

위 사례의 경우 작은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주로 침실에서 생활하는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거실과 침실을 통합하였다. 거실이라 명명된 공간에 침대를 두고 침대를 소파처럼 활용하여 TV를 보고 개인생활을 하다가, 가변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식당마저 거실 겸 침실에 통합한다. 각각

---

107) 알찬 신혼집으로 변신한 25년 된 14평 복도식 아파트, 2017년 12월 22일 19:05, (<https://ohou.se/projects/3295/detail>)



의 공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침대도 두고 싶고, 쇼파도 두고 싶은 저희... 욕심이 많았지만 배치를 이래저래 구상하며 있을 건 다 있는 거실 겸 침실을 만들었어요. 침대를 선택할 때는 수납이 가능하고, 조명이 있는 침대를 열심히 골랐어요! (중략)

침대를 옆으로 쇼파를 두었어요! 러그를 밑에 깔았는데 매우 부들부들 기분 좋아요! 러그를 바꾸면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강추! :) 쇼파도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스툴이 있었으면 해서 한쪽 팔걸이를 포기했죠.. ㅎㅎ 거실장도 가운데 하나만 샀다가 결국 풀세트로 재구매 했습니다. 수납장이 필요하기도 했고, 소품을 두고 싶었거든요! 거실장 위에는 tv부터해서 이것저것 많이 두었죠? (7755) 108)

위 사례의 경우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지 않은 원룸에서의 생활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침실이라 명명된 공간에 침대 뿐만 아니라 쇼파와 TV와 거실장을 두는 등 전형적인 거실의 배치를 함께 적용한다. 그 결과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영역에 거실과 침실이 구성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늑한 조명이 있는 거실이면서 동시에 TV를 볼 수 있는 침실이 되는 등 각 공간의 성격이 통합된다.

### 5.3.2. 식당과 거실의 교차 혹은 통합

온라인집들이에는 거실로 명명된 공간을 식당으로 재정의하여 일반적인 거실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거실과 식당을 구분 없이 사용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난다. 특히 식당의 경우 거실과 인접한 발코니를 확장하여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

108) 14평 인테리어, 알뜰하고 실속 있는 콕 찬 신혼집, 2018년 11월 25일 18:35, (<https://ohou.se/projects/7755/detail>)

〈표 9〉 온라인집들이 사례별 공간 재구성 방식의 분류

번호	기존 공간	제정의를 바탕으로 공간을 재구성	재구성의 분류		
			공간	가구	소품
2772	거실	소파와 작업테이블 일체화, 책상으로 거실을 분리, 식물을 이용한 분리, 서재	●	●	●
2997	식당	주방, 식당사이에 가벽을 설치, 이동식 테이블, 수집한 물건을 전시	●	●	●
3075	거실	가벽을 이용해 공간분리, 낮은 의자, 티테이블, 소품을 선반에 배치	●	●	●
3188	거실	카페용품이 가득한 선반, 베란다까지 확장하여 커피테이블	●	●	●
7755	거실	베란다에 잔디를 깔고 테이블을 배치, 조명과 파티용품, 소품	●	●	●
1706	방	침대와 소파, TV를 모두 침실에 둬, 단을 이용해 공간 분리	●	●	
1712	거실	낮은 벽을 세우고 수전과 화구를 이동, 10인용 식탁 배치	●	●	
1712	주방	커튼을 이용해 분리, 행거와 벽선반을 설치	●	●	
2765	거실	TV와 라운지 체어를 둔 공간, 작업 테이블과 선반을 둔 공간을 분리, 발코니를 확장해 원형테이블과 선반을 둬	●	●	
2997	방	화장실, 파우더룸, 드레스룸을 모두 터서 사용	●	●	
3063	거실	창을 위해 모든 벽을 제거, 창을 따라 긴 테이블	●	●	
3063	방	거실과 접한 벽을 트고, 빈백을 이용해 편안한 공간 구성	●	●	
3170	식당	벽을 허물어 주방과 거실을 연계	●	●	
3494	주방	기존의 아일랜드를 제거하고 넓게 사용	●	●	
4340	식당	트여있는 주방에 아일랜드를 두어 공간을 나눔	●	●	
5952	거실	주방과 가벽으로 분리해 닫힌 공간감, 둘러앉는 8인용 테이블	●	●	
5952	방	침대 사이즈에 맞춰 가벽을 세움, 옆 공간은 드레스룸으로 활용	●	●	
5952	주방	ㄷ자로 주방 장을 추가로 제작	●	●	
7363	거실	방을 터서 거실을 넓게 사용, 소파를 가운데 두어 두 부분으로 활용	●	●	
7363	방	방을 터서 거실을 넓게 사용, 소파	●	●	
7840	식당	크고 목직한 테이블로 분리	●	●	
9398	방	문을 제거해 거실과 연결, 책장과 큰 테이블	●	●	
9493	거실	게임방과 벽을 터서 연계, 게임기	●	●	
9640	주방	가벽으로 분리, 넓고 넉넉한 주방	●	●	
9888	거실	복도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림과 장식장	●		●
1635	주방	가벽을 이용해 분리	●		
2997	주방	가벽을 활용해 공간을 구분	●		
3188	주방	가벽을 활용	●		
3220	주방	가벽을 이용해 분리	●		
7722	거실	현관에 포인트로 사진의 바다와 얇은 증문 프레임	●		
9888	식당	식사 공간을 베란다로 배치	●		
10124	주방	싱크대와 조리대, 화구의 방향을 바꿈	●		
1635	방	큰 거울과 소품으로 장식		●	●
1706	거실	거실 중간에 작업테이블, 책과 소품이 놓이는 책장, 해먹, 캣타워		●	●
2017	방	컴퓨터와 벽을 가득 채운 선반, 수집한 인형과 피규어 전시		●	●
2154	거실	원형 테이블을 두고 간단한 소품으로 장식		●	●
2567	거실	캠핑 의자와 인조잔디를 깔아 캠핑 분위기를 만듦		●	●

2772	식당	기밀품과 소품들이 전시된 장식장, 조명아래 둘러앉는 테이블		●	●
2772	주방	최소한으로 필요한 도구만 진열, 식자재는 따로 설치된 수납장에 보관		●	●
2842	거실	다용도 테이블을 거실 중앙에 배치, 다양한 형태의 의자, 조명 배치		●	●
3057	거실	소파를 거실 가운데에 두고 잡지와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		●	●
3057	방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반듯한 테이블, 다양한 포스터, 액자		●	●
3057	방	책상과 부부의 취향을 보여주는 다양한 소품		●	●
3090	방	턴테이블, 스피커, 빔프로젝터, 원형테이블, 침대 등이 모두 침실에		●	●
3099	거실	베란다에 원형테이블과 선반, 조명 설치, 널찍한 소파를 주문 제작		●	●
3133	거실	TV는 침실에 배치, 액자와 빈티지 소품으로 가득하게 장식		●	●
3133	방	드레스룸을 서재로 사용, 불박이장이 책장으로 활용, 빈티지 소품		●	●
3390	거실	한쪽 벽면에 식탁 두고, 다양한 소품들로 장식, 오브제와 거울 사용		●	●
3475	거실	창을 향해 소파를 배치, 다양한 소품과 빈티지 가구로 장식		●	●
3494	거실	테이블과 책상에 소품으로 장식, 빈 벽에 빔프로젝터		●	●
3734	거실	거실에 침대와 식탁을 배치, 텐트를 설치		●	●
4532	거실	네온사인과 소품, 편안한 테이블, TV대신 빔프로젝터와 큰 스크린		●	●
7722	방	컴퓨터 작업을 위한 테이블, 옷걸이 행거와 함께 설치		●	●
7840	거실	액자 같은 TV를 사용, 다양한 액자와 소품으로 장식		●	●
7840	방	별도의 TV와 두대의 컴퓨터, 각종 용품을 둘 수 있는 선반과 서랍		●	●
7840	방	피아노와 기타, 쿠션으로 폭신하게 앉을 수 있도록		●	●
7906	방	책, 피아노, 와인 등 좋아하는 것들이 모인 휴식공간, 채워가는 공간		●	●
9402	거실	크고작은 테이블, 장식장, 소파 등 위치를 계속 이동		●	●
9418	방	카페용품, 빈티지 소품, 원형 테이블		●	●
9421	주방	다용도실을 주방처럼 사용하고 주방은 수납공간, 홈카페로 활용		●	●
9480	방	높고 낮은 여러개의 테이블을 배치하여 수집한 물건을 전시		●	●
9480	방	빈티지 그릇장, 책과 소파, 컴퓨터		●	●
9493	방	원형 테이블, 빈티지 식기, 장식장		●	●
9504	방	운동기구와 각종 소품		●	●
9640	거실	캐트워와 고양이 용품이 대부분을 차지, 소파를 거실 가운데에 두어 침대처럼 사용, 화장대		●	●
9734	거실	TV 없이, 둘러앉는 테이블을 거실 가운데에 배치, 화장대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소품 배치		●	●
9888	거실	각종 의자와 테이블, 자투리 공간에 화장대와 각종 소품을 둬		●	●
9888	방	각종 피규어와 컴퓨터		●	●
10041	거실	캠핑장비로 생활, 실내난로, 턴테이블과 스피커		●	●
10041	방	다양한 꾸미기를 하는 공간		●	●
10041	식당	하얗고 둥근 식탁과 조명		●	●
10041	주방	커피 용품을 둘 선반과 수납공간		●	●
10124	방	요가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가구, 소품		●	●
10124	방	빔프로젝터로 영화를 보는 방, 소파와 하얀 벽		●	●
1635	식당	벽을 향하도록 책상을 붙여서 배치		●	
1727	거실	TV를 두지 않고 1인소파 2개, 다이닝 테이블 겸 작업 테이블		●	
2154	방	이젤과 편안한 의자를 침실 한쪽에 둬		●	

2154	주방	식탁과 수납장, 냉장고를 두지 않음	●	
2727	거실	커다란 테이블과 벤치형 의자를 배치	●	
2727	식당	식탁을 없애고 거실의 테이블을 활용하거나 접이식 테이블	●	
2737	거실	8인용 테이블을 거실 가운데에 대각선으로 배치	●	
2772	방	양쪽 벽을 따라 행거를 설치	●	
2842	방	컴퓨터 2대와 수납공간	●	
2842	식당	조립식 선반 활용	●	
2872	방	넉넉한 크기의 원형 테이블과 의자	●	
2919	거실	긴 바테이블과 부분조명을 설치	●	
2919	식당	일식 다저 같은 형태의 식탁	●	
2940	식당	2명이 사는 집에 8인용 테이블	●	
2944	거실	TV 없이 소파를 마주보도록 2개 배치, 강아지 소파도 배치	●	
2944	식당	창가를 향하는 테이블	●	
2971	거실	거실에 신랑을 위한 작업 테이블을 둠	●	
2971	방	큰 침대와 서재를 침실에	●	
2971	방	커다란 거울과 운동기구	●	
2971	주방	거대한 냉장고와 아일랜드 테이블	●	
3075	식당	한쪽 벽을 책장으로	●	
3077	거실	식탁을 움직여가며 사용	●	
3077	방	작업 테이블과 행거	●	
3079	식당	접이식 가구를 다용도실에 보관	●	
3090	거실	티비와 소파를 두었지만 사용하지 않음	●	
3099	방	컴퓨터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아, 화이트로 통일해 작업에 집중	●	
3170	거실	작업 테이블과 식탁을 연계	●	
3220	거실	거실에 큰 다이닝 테이블을 배치	●	
3295	방	접이식 가구를 이용해 코너별로 서로다른 영역을 구획	●	
3379	거실	소파 옆에 테이블 설치, 이동가능한 TV, 이동가능한 소파	●	
3379	방	기존의 파우더룸을 수납공간으로 쓰고 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함께 배치	●	
3390	방	소파와 TV를 배치	●	
3623	방	쇼룸처럼 보이도록 가구를 벽에 붙이지않고 사용, 옷걸이 행거	●	
3623	식당	아일랜드 식탁 외에 별도의 원형식탁을 둠	●	
3734	주방	기존의 규모있던 주방을 최소화하고 취미생활인 꽃꽂이 공간으로 활용	●	
4340	거실	넓어보이기 위해 작은 소파 이외에는 두지 않음	●	
5952	방	소파와 흰 벽만 있는 공간, 손님을 위한 소파베드로 활용	●	
7722	식당	손님이 오면 둘러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	●	
7755	방	침대 앞에 소파를 배치하고 TV를 둠	●	
7906	거실	창을 향해 소파를 배치, 강아지와 마주보는 배치	●	
9398	거실	소파를 두지 않고 원형 테이블	●	
9402	식당	테라스에 큰 소파와 테이블을 두어 식사, 거실의 테이블 활용	●	
9418	거실	모듈형 소파를 사용해 배치를 바꿔줌, 빔프로젝터	●	

9418	방	부부 침대를 따로 사용		●	
9421	식당	접이식 식탁을 펼쳐 거실까지 활용		●	
9493	방	컴퓨터와 맥주창고, 게임기		●	
9493	식당	아일랜드 식탁 외에 별도의 원형식탁을 둠		●	
9504	거실	한쪽 벽 전체에 벽장, 벽식 좌석과 6인테이블을 중심에 둠, TV는 없음		●	
9504	식당	거실에 테이블을 식탁으로 쓰고 간단한 바테이블을 배치		●	
9504	주방	냉장고를 베란다에 배치		●	
9888	방	캐타워와 고양이 카펫으로 가득한 방		●	
9888	주방	냉장고와 수납장을 주방 베란다로 배치		●	
10124	거실	주방을 향해 가구를 배치		●	
7722	방	사용하지 않지만 바라보는 용도의 가구와 소품을 배치			●
9402	방	집에서 작업하며 소품을 촬영, 흰 테이블, 벽장			●
9421	방	식물로 가득한 공간			●
9504	방	식물로 가득한 공간			●
1727	식당	식탁을 두지 않고 거실과 함께 사용			
2737	식당				
2872	거실	소파와 TV 등 어떤 가구도 두지 않는 빈 공간			
2940	거실				
3079	거실	소파없이 바닥에서 생활			
3475	방				
9480	거실				
9640	방				
9734	식당	식탁을 두지 않고 거실과 함께 사용, 주방을 넓게 사용			

## 5.4. 소결

거주자가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방식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세 가지 유형은 (1) 주거의 역할을 재정의 : 새로운 프로그램, (2) 주거 내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 : 실의 맞춤화, (3) 주거의 물리적 구성을 재정의 : 교차와 통합이다.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범위에서 주거를 재정의한다.

(1) 주거의 역할을 재정의 : 새로운 프로그램의 경우, ①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에서의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②거주자의 생활보다 사물이 우선되도록 하거나, ③재생산의 공간을 생산의 공간으로 만드는 등, 통상적인 주거가 가지는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이다. 주거 내 공간을 주거가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은 주거 자체가 가지는 통상적인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에서 주거에 대한 재정의라고 할 수 있다.

①공적 공간에서의 경험은 공적 시선을 주거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공적 공간의 분위기, 서비스를 재현함으로써 주거 내부에서 가능해진다. 이것에는 홈카페, 홈바, 홈캠핑, 홈PC방 등이 있다. ②통상적인 주거가 거주자의 생활을 우선으로 모든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과 달리 사물을 위한 공간으로써 주거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갤러리, 전시공간으로 재정의된 공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③휴식과 재생산의 공간으로써 통상적인 주거가 가지는 역할이 아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직접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거를 재정의한다. 샵하우스나 겸용주택의 경우가 아닌, 아파트에서 이러한 직주가 통합되는 재정의 방식이 독특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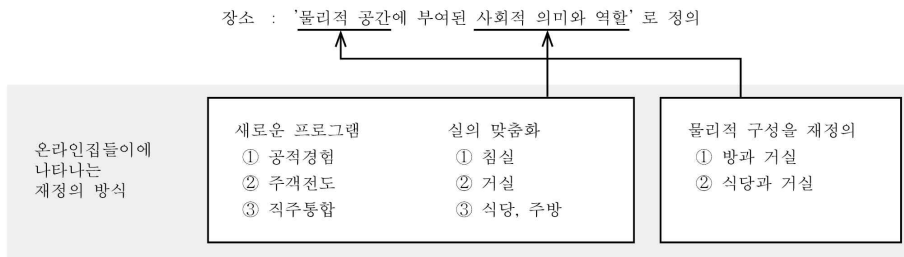
(2) 주거 내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 : 실의 맞춤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①침실, ②거실, ③주방, 식당의 특성을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맞게 일부 재정의하는 방식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각 실의 특성이 온라인집들이 사용자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언급

되고 새롭게 재정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 내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과정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주거에 대한 재정의라고 할 수 있다.

①침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지만, 온라인집들이에서는 개방적인 생활방식, 혹은 공간을 넓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재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취침공간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개인의 생활방식을 덧붙여 새롭게 재정의하기도 한다. ②거실의 경우 TV와 소파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란행위에 대해 가장 많은 재정의가 이루어졌다. TV와 소파가 아닌 책상이나 음악 등의 요소를 가족단란의 중심으로 재정의 했다. ③주방과 식당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 거실과 주방의 연계를 강조하였으나, 온라인 집들이에서는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따라 거실과 분리된 경우와 거실과 연계된 경우가 함께 나타났다.

(3) 주거의 물리적 구성을 재정의 : 교차와 통합의 경우, 주거의 물리적 공간에 부여된 기능을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맞게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글쓴이가 파악한 각 공간이 가진 크기나 위치, 형태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공간을 자신의 생활방식을 비교하여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주거 내의 다른 기능으로 바꾼다.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침실과 거실의 교차와 통합, 식당과 거실의 교차와 통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주자가 넓은 범위에서 주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좁은 범위에서 주거 내 공간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주거의 물리적 구성 또한 재정의함을 확인하였다. 앞서 장소를 물리적 공간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와 역할로 정의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장소 개념의 전반에 걸쳐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온라인집들이가 재정의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 개념의 범위와 재정의 방식



## 제 6장. 주거를 통한 개인적 지식의 형성과 공유

융합미디어의 등장으로 전문가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지식만큼이나 비전문가에 의해 개인적 지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선행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체와 관련된 지식(의, 식, 주)의 경우 일상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체화된 지식의 형태로 공유되어, 개인이 지식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서 위상을 가지게 된다. 개인에 의해 생산된 지식은 융합미디어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 수정, 재생산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드러나는 주거 내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공유되는 과정이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지식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온라인집들이에서 드러나는 주거 내 장소가 재정의되는 과정은 재정의 과정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서술하는 자료로 개인적 지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집들이에서 제공하는 댓글, 스크랩, 공유 등의 서비스는 온라인집들이에 담긴 개인적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 수정, 재생산 될 가능성을 가진다.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3. 온라인집들이의 아파트 전용사례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지식 개념을 바탕으로 공유되는가?
  - 가. 온라인집들이를 통해 공유되는 장소의 재정의에 관한 정보는 개인적 경험과 관련을 가지는가?
  - 나. 온라인집들이를 통해 공유되는 장소의 재정의에 관한 정보는 여러 개인들의 생산, 수정, 재분배를 거쳐 개인적 지식을 형성하는가?

다. 온라인집들이를 통해 형성된 개인적 지식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가?

본 장에서는 온라인집들이 댓글을 문장단위로 분석한 뒤, 온라인집들이 본문과 관련하여 각각의 댓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집들이의 글쓴이와 독자가 댓글을 통해 주고받는 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개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한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을 비교함으로써 개인적 지식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6.1. 온라인집들이 댓글을 통한 정보의 공유방식 분석

온라인집들이의 댓글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 독자와 독자 사이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 온라인집들이의 댓글은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글쓴이를 청자로 상정해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글쓴이나 다른 독자들이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댓글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①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감상), ② 독자가 글쓴이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정보 요구), ③ 독자가 글쓴이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조언), ④ 글쓴이가 독자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글쓴이의 답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집들이의 모든 댓글을 이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표 10> 참조)

〈표 10〉 온라인집들이 댓글을 통한 정보의 공유방식 분류

프로젝트 번호	댓글 수	①감상		②정보 요구		③조언		④글쓴이의 답글	
2501	76	39	0.51	37	0.49	0	0.00	0	0.00
2971	130	60	0.46	43	0.33	0	0.00	27	0.21
1706	34	13	0.38	14	0.41	0	0.00	7	0.21
3090	105	60	0.57	27	0.26	0	0.00	18	0.17
3099	79	28	0.35	38	0.48	0	0.00	13	0.16
3188	85	45	0.53	26	0.31	0	0.00	14	0.16
3063	95	69	0.73	19	0.20	1	0.01	6	0.06
2977	78	33	0.42	16	0.21	0	0.00	29	0.37
3623	85	25	0.29	43	0.51	0	0.00	17	0.20
2772	101	52	0.51	33	0.33	3	0.03	13	0.13
2765	59	33	0.56	13	0.22	0	0.00	13	0.22
3077	43	17	0.40	17	0.40	1	0.02	8	0.19
1727	54	23	0.43	24	0.44	0	0.00	7	0.13
7906	130	40	0.31	28	0.22	0	0.00	62	0.48
2944	30	9	0.30	16	0.53	0	0.00	5	0.17
7722	73	51	0.70	21	0.29	1	0.01	0	0.00
5952	95	30	0.32	33	0.35	1	0.01	31	0.33
4340	148	54	0.36	52	0.35	1	0.01	41	0.28
3170	52	13	0.25	16	0.31	0	0.00	23	0.44
3133	22	11	0.50	8	0.36	0	0.00	3	0.14
10041	71	29	0.41	17	0.24	0	0.00	25	0.35
9888	29	12	0.41	7	0.24	0	0.00	10	0.34
10124	25	24	0.96	1	0.04	0	0.00	0	0.00
9734	8	6	0.75	1	0.13	0	0.00	1	0.13
9640	159	72	0.45	7	0.04	0	0.00	80	0.50
9504	33	19	0.58	13	0.39	1	0.03	0	0.00
9493	30	11	0.37	8	0.27	0	0.00	11	0.37
9480	48	19	0.40	8	0.17	0	0.00	21	0.44
9421	23	12	0.52	3	0.13	0	0.00	8	0.35
9402	12	8	0.67	4	0.33	0	0.00	0	0.00
9418	20	3	0.15	8	0.40	0	0.00	9	0.45
9398	61	30	0.49	12	0.20	0	0.00	19	0.31
1625	32	14	0.44	13	0.41	0	0.00	5	0.16
3220	42	18	0.43	18	0.43	1	0.02	5	0.12
2567	53	15	0.28	20	0.38	0	0.00	18	0.34
3295	16	7	0.44	9	0.56	0	0.00	0	0.00
2727	24	5	0.21	15	0.63	0	0.00	4	0.17
3734	55	31	0.56	17	0.31	1	0.02	6	0.11
2872	26	14	0.54	11	0.42	0	0.00	1	0.04
2470	38	6	0.16	18	0.47	0	0.00	14	0.37
2940	30	15	0.50	8	0.27	0	0.00	7	0.23

3079	14	13	0.93	1	0.07	0	0.00	0	0.00
3132	49	29	0.59	10	0.20	0	0.00	10	0.20
7840	42	29	0.69	12	0.29	0	0.00	1	0.02
2154	48	18	0.38	14	0.29	1	0.02	15	0.31
2842	35	13	0.37	8	0.23	0	0.00	14	0.40
3475	32	16	0.50	10	0.31	1	0.03	5	0.16
1712	31	20	0.65	8	0.26	0	0.00	3	0.10
2919	60	14	0.23	25	0.42	2	0.03	19	0.32
4532	56	29	0.52	12	0.21	0	0.00	15	0.27
3057	19	14	0.74	5	0.26	0	0.00	0	0.00
2017	39	16	0.41	23	0.59	0	0.00	0	0.00
3494	65	32	0.49	15	0.23	0	0.00	18	0.28
3390	24	14	0.58	7	0.29	0	0.00	3	0.13
3379	15	4	0.27	11	0.73	0	0.00	0	0.00
3075	22	11	0.50	5	0.23	1	0.05	5	0.23
2737	16	8	0.50	3	0.19	0	0.00	5	0.31
7755	89	16	0.18	31	0.35	0	0.00	42	0.47
7363	25	15	0.60	7	0.28	0	0.00	3	0.12
계	3090	1386	<b>0.45</b>	949	<b>0.31</b>	16	<b>0.01</b>	739	<b>0.24</b>

①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감상)는 정보를 전달할 목적 없이 온라인집들이의 본문을 읽고 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한다. 글쓴이의 감각을 칭찬하거나 자신의 주거와 비교하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댓글을 통해 밝히기도 한다. ‘와..너무 이쁘게 꾸미셨네요. 하루하루 설레이는 생활일거 같아요. 덕분에 잘보고 갑니다’<sup>109)</sup>나 ‘디자인하신분이라 역시 감각이 남다르시네요. 나도 좁은빌라를 고쳐서 이사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나네요.’<sup>110)</sup>와 같은 내용이다.

② 독자가 글쓴이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정보 요구)는 온라인 집들이에서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글쓴이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의 댓글이다. 제품의 후기나 구매정보를 묻기도 하고, 주거와 관련된 각종 업체의 정보를 묻기도 한다. 독자가 요구한 정보

109) 스타일링 3년 후, 새로운 집을 준비하며 돌아보다, 2019년 03월 07일 10:05, (<https://ohou.se/projects/9357/detail>)

110) 한결 같은 취향으로 꾸민 잡동사니 컬렉터의 집, 2018년 07월 20일 17:35 (<https://ohou.se/projects/4151/detail>)

를 글쓴이가 알려준다고 해서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일방적으로 독자가 글쓴이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독자의 정보 요구에 대해서 글쓴이는 자유롭게 답글(④ 글쓴이의 답글)을 통해 정보를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한다.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식탁은 어떻게 배치 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주방 구조와 냉장고 위치가 같은데 저흰 식탁 배치가 나오지 않아 식탁 구매를 못하고 있네요’ 111) ‘티비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쇼파에서 거리두요ㅜㅜ’ 112)와 같은 내용이다.

③ 독자가 글쓴이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조언)는 온라인집들이를 읽고 독자가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를 글쓴이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댓글이다. 글쓴이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더 나은 방향으로 주거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집들이의 인기글은 오늘의 집 포털에서 권위를 가지는 게시물이기 때문에, 정보를 자유롭게 제안하기에는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으며, 독자가 글쓴이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간혹 나타나는 댓글은 ‘신경 많이 쓰셨네요 멋져요 침구만 더 고급스러웠음 더 돋보일듯해요.’ 113), ‘디퓨저나 향초는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귀염둥이들을 보니 괜한 노파심으로 말씀드려요.’ 114)

④ 글쓴이가 독자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글쓴이의 답글)은 ① 감상과 ② 정보 요구에 대한 답글로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거나 독자들이 요구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잘 보았어요. 바닥재 궁금해요..’와 같은 정보 요구에 대하여 ‘바닥재는 데코타일입

111) 러블리한 신혼집 인테리어^^, 2016년 07월 12일 17:43 (<https://ohou.se/projects/2267/detail>)

112) 복작복작, 귀여운 변화가 눈에 띄는 19평 신혼집, 2018년 06월 19일 18:35 (<https://ohou.se/projects/3734/detail>)

113) 프리랜서 공간디자이너의 철학을 담은 집 #24평, 2017년 02월 22일 20:05 (<https://ohou.se/projects/2772/detail>)

114) 함께하고, 기록하고, 부부의 취향, 2017년 07월 26일 20:05 (<https://ohou.se/projects/3057/detail>)

니다! 영채은 네이버 주코리아에서 구입하시면돼요!’ 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집들이 인기글에 작성된 댓글을 위에서 설정한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① 감상과 ② 정보 요구, ④ 글쓴이의 답글의 비율은 각각의 게시물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달라 특별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나, ③ 조언의 경우 모든 게시물에서 크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90개의 댓글 중 ① 감상은 45%, ② 정보 요구는 31%, ④ 글쓴이의 답글은 24%를 차지하였으며, ③ 조언은 1% 미만을 차지하였다. 약 1%에 해당하는 16개의 ③ 조언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주거와 관련하여 독자가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댓글은 3개뿐이었으며,<sup>115)</sup> 나머지는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sup>116)</sup>나 게시물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른 조언들<sup>117)</sup>이었다.

---

115) 레몬핑크 : 신경 많이 쓰셨네요 멋져요 침구만 더 고급스러웠음 더 돋보일듯해요 (2772), hyeily001 : 화장대가 아쉬우시다면 시트지를 붙여서 사용하는건 어떨까음 원래 있던 판이 대리석같은 재질이라 시트지를 붙여도 나중에 깔끔하게 잘 떼어질것같아요 ㅎㅎ(3475), Serimini : 시간이 천천히 흐를 것 같은 집이네요 아름다운 공간 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디퓨저나 향초는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귀염둥이들을 보니 괜한 노파심으로 말씀드려봅니다 (3057)

116) 거기 : 죄송한데 우리 나라 분쇄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도 이거 설치 하려다가 아직까진 불법인데다 나중에 잘게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배수구에 쌓여 다 뜯어낸다고 해서 말리시던데.(2772), christine48 : 리모델링은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그런데 사시던 분들이 이사나 간후 빈집의 모습을 비포 사진으로 올리셨더라면 더 좋았을것같아요 전에 사시던분의 살림살이까지 전부 사진으로 보여지니 좀... 그분들이 보시면 기분이 안 좋을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요(2772), miinii0 : 전에 살던 분한테 동의 받고 사진 올리시는건가요?(4340)

117) 푸딩트리 : 사람은 능력과 노력이 인성에 상반되며 비례되지 않습니다. 부디 좋은 분들이라면 행복하게 살길바랍니다.(3063), 5차원의현자jatae : 예쁘게 되었네요..신혼집이면 아기도생겨야할겁니다.건강한몸이필요하죠~아기가태어나면 특히 아기건강에 신경써야합니다. 내부에 규조토나 황토 추천합니다.(3077), 성호33 : 띠어쓰기??엄청되었어요~~~~수정해주세요~(3220),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온라인집들이에서 글쓴이와 독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는 글쓴이와 독자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글쓴이에서 독자로 일방향적인 전달이라는 것이다. 온라인집들이에서의 정보전달은 하나의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한 온라인집들이의 글쓴이가 다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독자가 되어 정보를 전달받고 축적하는 방식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인다.

## 6.2. 온라인집들이를 통한 정보의 축적과 개인적 지식의 형성

본 장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온라인집들을 비교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에 의해 주거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 경험이 축적되어 개인적 지식이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앞선 장에서는 온라인집들의 댓글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정보의 공유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다소 일방적으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졌으나 한 온라인집들의 글쓴이가 다른 온라인집들의 독자가 됨으로써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스크랩을 통해 온라인집들의 글쓴이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집들이에서 보이는 정보만을 통해 온라인집들이 글쓴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를 포착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집들이에서 글쓴이가 접한 정보들이 이후 일어나는 재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들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수집한 온라인집들이 사례 중에서 두 번 이상 온라인집들을 작성한 계정들을 수집하였다(<표 11> 참조). 앞서 수집한 62개의 사례 중 두 번 이상 온라인집들을 작성한 경우는 6개였다. 6개의 계정 중 5개의 계정은 2번 온라인집들을 작성하였으며, 1개의 계정은 4번의 온라인집들을 작성하였으나 그 중 3번의 온라인집들이는 같은 시점에 쓰인 것으로 파악되어<sup>118)</sup>, 사실

---

118) 로라민주(<https://ohou.se/users/1066057>)의 경우, 2017년 10월 21일에서 2017년 11월 05일까지 3개의 게시물(3170, 3171, 3174)을 게시하였으나,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의 시점에 이루어진 온라인집들로 간주하였다. 이후 2018년 12월 20일에 다시 온라인집들이(8142)를 게시하였다.



상 6개의 계정 모두 두 시점의 온라인집들이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온라인집들이의 본문을 분석했듯이 다른 시점의 온라인집들이 또한 본문의 텍스트를 문장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서로 다른 시점의 온라인집들이에서 연관된 문장들을 추출하여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보가 충분한 경우, 서로 다른 시점 사이에 작성된 댓글이나 스크랩된 게시물을 통해서 온라인집들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1〉 참조)

서로 다른 두 시점의 온라인집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전의 온라인집들과 비교하여 그 이후에 변화된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새롭게 주거공간을 가꾸기를 위해 인테리어, 가구, 제품을 선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내용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반면 두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자신이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 선택한 인테리어, 가구, 제품을 어느정도 기간 사용해본 입장에서 사용 후기나 요령을 설명하는 내용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주거를 얻어서 다시 주거공간 가꾸기를 수행하는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11〉 서로 다른 시점의 두 온라인집들이 비교

	첫 번째 게시물	119	두 번째 게시물
SLOW360 (2006, 9357)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 미리 가구를 배치	넷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언급
	이사할 경우 바뀔 수 있는 가구는 합리적 가격의 OEM 선택		원목 제품과 무늬목이 섞인 중국 OEM의 품질 차이를 느낌
	오래 사용할 가구는 좋은 원목으로 만들어진 가구로 구입		오일 마감된 제품은 흠집이 메꿔져 사용성이 좋음
	필요한 가전은 블랙, 그레이, 우드, 메탈로 통일해 구입		고사양, 고가의 가전을 구입한 것에 후회
	바니쉬 마감은 기스가 날 수 있어서 방수천으로 덮어서 사용		원목에 방수천을 덮어 사용했더니 틈새로 물이 들어가 파손
	기존 한샘 불박이장을 그대로 사용		슬라이딩 도어로 옷이 손상됨
로라민주 (3170, 8142)	드러내기 위한 소품이 아닌 이상 모든 소품은 수납장 속에 정리	스	그릇에 관심이 생기면서 살림살이가 많아지고 수납의 중요성 느껴짐
	좁은집이 넓어보이기 위해 거실과 주방을 오픈		거실과 주방을 합친 넓은 공간에서 요가라는 새로운 취미
	비어보이는 곳에 액자를 배치	스	풍수를 알게 되 그림, 소품 재배치
	주방 수납장만으로 깔끔하게 집기를 정리		수납장에서 주방집기를 꺼내는 방식이 불편해 행거 설치
	기존의 세면대를 제거하고 화이트 톤의 세면대 제작		MDF로 세면대를 만들었지만 건식으로 깨끗하게 사용 중
cecile. h (3133, 4151)	창고 공간은 정리만하고 그대로 둬		구석 공간을 홈오피스로 재정의하여 잘 활용하고 있음
	빈티지 제품을 주거 전반에 걸쳐 적절히 사용	넷	빈티지 제품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국내외에서 조금씩 구입함
똥히히 (2043, 10416)	남편의 집을 리모델링해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이 가는 중		이전 집에 비해 편리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
	깔끔하게 정리된 셋탑박스과 전선에 대한 사진	넷	공간박스를 활용해 와이파이가 공유기 등을 가림
on.bodoni (2625, 3605)	미니멀한 공간을 위해 침대만 설치		흰 커튼은 빛을 가리지 못함
	통돌이 세탁기만 설치		건조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을 겪음
	고양이 털 관리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넷	고양이털은 자주 청소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음
	미니멀한 공간을 위해 가구를 최소한으로 설치	스	미니멀과는 멀어졌지만 정리정돈, 쓰지 않는 물건 버리기로 유지
헤링링 (2267, 3734)	예쁘고 깔끔한게 마음에 들어 구입		폭신한 패브릭이지만 때가 잘 안타서 좋음
	휴지나 생필품을 놓는 사다리 선반	타	사다리 선반에 대한 설명

119) 첫 번째 게시물과 두 번째 게시물 사이에 이루어졌던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 ‘SLOW360’의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이사할 경우 바뀔 수 있는 가구는 합리적 가격의 OEM 선택’ 하였으나, 3년 이상 가구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원목 제품과 무늬목이 섞인 중국 OEM의 품질 차이를 느낌’ 이라고 밝힌다. 직접 가구를 사용하면서 나무가 변형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적 지식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on.bodoni’의 경우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짐을 최소화 하기위해 필요한 가전만 구입’ 하면서 통돌이 세탁기를 베란다에 배치하고 다른 물건들을 함께 배치한다. 하지만 직접 주거를 사용하면서 건조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건조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을 겪음’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에게 여유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언한다. 이 사례의 경우도 직접 주거공간을 사용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개인적 지식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첫 번째 온라인집들을 게시한 이후 댓글을 통해서 받은 질문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함께 비교하면서 한층 더 다듬어진 개인적 지식을 제시한다. 이때 온라인집들이의 댓글을 통해 받은 질문 뿐 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받은 질문들도 함께 정리하여 언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SLOW360’의 경우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 미리 가구를 배치’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통해 3D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공부법을 질문하였다. 이후 두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이것의 영향을 받아 3D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언급하고 프로그램의 이름과 공부법을 언급한다. 그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VR 프로그램도 추가로 제시한다. ‘헤어링’의 경우에는 ‘휴지 및 생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다리 선

---

용 중 게시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댓글(댓글), 스크랩(스), 타 소셜미디어(타)를 통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을 설치했는데, 온라인집들이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사다리 선반의 사용 후기나 구매처 등을 밝히기도 한다. 실제로 ‘헤링링’의 인스타그램 계정 ‘hyerring\_’을 살펴보면 사다리 선반이 포함된 사진의 게시물에는 사다리 선반의 사용 후기와 구매처를 물어보는 댓글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20)</sup>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호작용은 하나의 사이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이트 사이에서도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시점의 온라인집들이를 게시한 사용자의 표본이 충분히 많지 않아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점의 온라인집들이를 게시한 사용자는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획득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지식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댓글과 스크랩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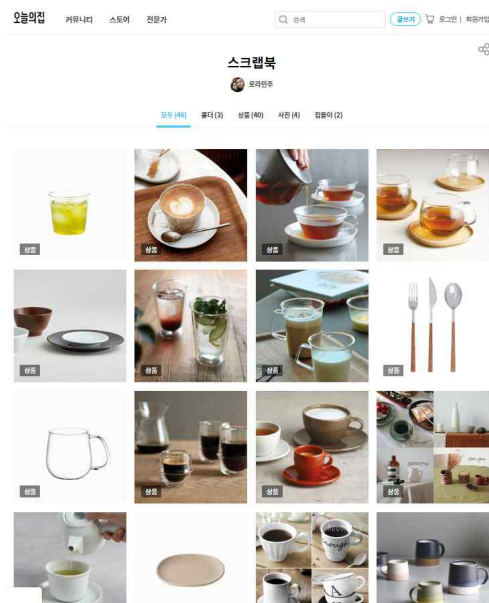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온라인집들이 글쓴이가 스크랩한 각종 정보들이 이후 게시한 온라인집들이에 영향을 주었음을 일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집들이에서는 특정 사용자가 스크랩한 다른 사용자의 사진이나 온라인집들이, 상품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스크랩한 정보들은 이후 사용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축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주거공간을 가꾸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와 두 번째 온라인집들을 비교해 변화한 부분들 중에서 온라인집들이 글쓴이가 스크랩한 게시물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라민주’의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드러내기 위한 소

---

120) j.ae\_ : 가구가 다 예쁘네요. 사다리선반 어디 제품인지 알려주세요 (<https://www.instagram.com/p/BjyfMeRBD60/>), j\_jeong5 : 저기 선반은 혹시 어디 서사신거예요?^^ (<https://www.instagram.com/p/BiOYvXbhdnZ/>), baby\_hjhj : 사다리선반 어디서 구매하셨나용? (<https://www.instagram.com/p/BhGCed6hqDs/>), 외 다수의 게시물

품이 아닌 이상 모든 소품은 수납장 속에 정리’ 하는 등 그릇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거나 전시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수납장을 잘 활용해 정리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그릇에 관심이 생기면서 살림살이가 많아지고 수납의 중요성 느껴짐’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릇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를 사용하면서 점점 그릇이 늘어나는 경험을 통해 수납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행거 등을 활용해 수납을 해결하는 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로라민주’가 스크랩한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릇과 관련된 상품과 그릇이 포함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실제로 구매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로라민주’가 온라인집들이에 게시되는 다양한 정보들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로라민주’의 스크랩 보드

### 6.3. 소결

온라인집들이 인기글에 작성된 댓글을 ① 감상, ② 정보 요구, ③ 조언, ④ 글쓴이의 답글 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게시물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달라 특별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나 ③ 조언의 경우 모든 게시물에서 크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90개의 댓글 중 ① 감상은 45%, ② 정보 요구는 31%, ④ 글쓴이의 답글은 24%를 차지하였으며, ③ 조언은 1% 미만을 차지하였다. 약 1%에 해당하는 16개의 ③ 조언의 댓글 중에서 글쓴이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가 담긴 댓글은 4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온라인집들이에서 글쓴이와 독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는 글쓴이와 독자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글쓴이에서 독자로 일방향적인 전달이라는 것이다. 온라인집들이에서의 정보전달은 하나의 온라인집들이 게시물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한 온라인집들이의 글쓴이가 다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독자가 되어 정보를 전달받고 스크랩을 통해 축적하는 방식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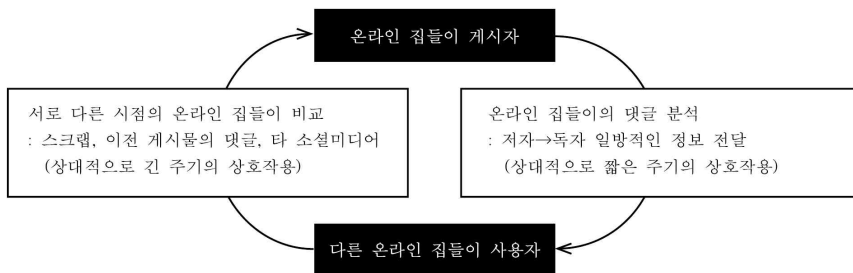
서로 다른 두 시점의 온라인집들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선택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로 내용이 구성된 반면, 두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어느정도 기간 사용해본 입장에서 사용 후기나 요령을 설명하는 내용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다듬어진 개인적 지식을 제시한다.

한편, 두 번째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첫 번째 온라인집들을 게시한 이후 댓글을 통해서 받은 질문들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로 알려주기도 한다. 이때 온라인집들이 뿐 만 아니라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받은 질문들도 함께 정리하여 언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 간에도 정보가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집들이 글쓴이가 스크랩한 각종 정보들이 이후 게시한 온라인집들이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온라인집들이와 두 번째 온라인집들을 비교해 변화한 부분들 중에서 온라인집들이 글쓴이가 스크랩한 게시물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온라인집들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들이 타인의 주거를 재정의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시점에 작성된 게시물을 6개를 통해 온라인 집들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다양한 유형들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온라인집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상호작용 방식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22〉 온라인집들이 게시자와  
다른 온라인집들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

## 제 7장. 결론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타나는 건축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건축에서 가정하던 건축과 인간의 관계를 벗어나는 현상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적 공간인 주거를 타인에게 공개하고 주거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오늘의 집'의 '온라인집들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주거의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 주거에 얽힌 전반적인 생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집들이 게시물과 댓글 등의 텍스트가 이전의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없는 거주자의 구체적인 생각과 사용실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소를 물리적 공간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와 역할로 정의하고, 온라인집들이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공간의 전용사례를 주거 내 장소의 재정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집들이는 소셜미디어이며, 소셜미디어는 대표적인 융합미디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타나는 건축을 대하는 인간의 변화한 태도는 융합미디어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했을 것이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온라인집들이의 아파트 전용사례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가?
2. 온라인집들이의 아파트 전용사례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대상으로 하는 장소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재정의 되는가?
3. 온라인집들이의 아파트 전용사례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재정의 과정의 공유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지식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가?



1.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이에서 서술되는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된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온라인집들의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는 ①개인이 주체가 되어, ②일상행위와 관련하여, ③정보를 바탕으로 ④기존의 장소의 정의를 ⑤새롭게 재정의한다.

온라인집들의 서사구조는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 현 주거 환경, 주거공간 가꾸기 과정, 가꾸기 이후의 변화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가꾸기 이전의 인식과 경험에서는 ①개인이 주체로서 드러나며, 재정의의 배경이 되는 ②일상행위가 제시된다. 현주거 환경에서는 재정의의 대상이 되는 ④기존의 주거가 가진 장소성이 제시되며 자신의 일상행위와 대비된다. 주거공간 가꾸기에서는 ⑤실질적인 재정의 과정이 서술되며, ③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온라인집들의 서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 개념과 대응된다. 따라서 온라인집들의 장소 재정의 과정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장소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집들이에서 주거 내 장소를 재정의하는 과정은 건축가나 전문가의 개입 없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 이는 전문가만이 알던 전문지식이 온라인집들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전문가에게도 확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꿀팁’의 형태로 전달되는 주거와 관련된 지식은 개인이 직접 일상행위를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고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다듬어진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음으로써 거주자가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재정의의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2. 본 연구는 온라인집들의 장소 재정의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장소 개념의

전반에 걸쳐 재정의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앞서 분석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거주자가 재정의의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장소의 정의와 재정의 이후 새로운 장소의 정의를 비교함으로써 재정의 방식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재정의 방식은 ①새로운 프로그램, ②실의 맞춤화, ③교차와 통합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때 각각은 주거의 역할, 공간의 의미, 물리적 구성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장소를 정의하는 모든 요소가 재정의의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주거를 재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주거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해당하는 사적 영역, 생활을 위한 공간, 재생산의 공간 등의 전제를 부정한다. 공적 경험과 공적 시선을 주거 내부로 끌어들이므로써 주거가 가지는 공적, 사적 위계를 없애거나, 거주자보다 특정 사물들을 우선으로 주거를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이 주거의 주된 기능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주거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주거를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공유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타인의 재정의 사례를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상업적 용도로 쓰이던 전문화된 기기들을 일반인도 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증대된 이동성으로 주거 내부의 모든 공간이 사적 위계에 관계없이 공적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② 실의 맞춤화를 통해 기존의 주거 내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부정하고 각 공간을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춰 재정의 하기도 한다.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확산된 아파트 내 각 실들의 고정된 의미(NLDK)는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가구의 배치, 공간의 위계 등을 제한시킨다. 온라인집들이에서는 TV와 소파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단위의 공간인 거실, 침대가 놓이는 부부의 사적 공간인 침실 등과 같은 기존의 주거 내 공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언젠가 재정의 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내 각 실들의 고정된 의미는 서로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온라인집들이 사

용자들 사이에서도 장소의 재정의 과정이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③ 한편으로는 주거 내 물리적 구성을 부정하고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기도 한다. 각 공간에 주어진 정의를 부정하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크기와 형태의 공간에 맞게 재정의한다. 거실을 침실로 정의하거나 식당과 거실을 통합하는 등,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공간과 공간의 정의를 새롭게 대응시킨다. 이는 아파트는 처음부터 개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기성제품과 같이 대량생산되어 공급된 아파트에 개인이 입주해 사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물리적 공간을 쉽게 변형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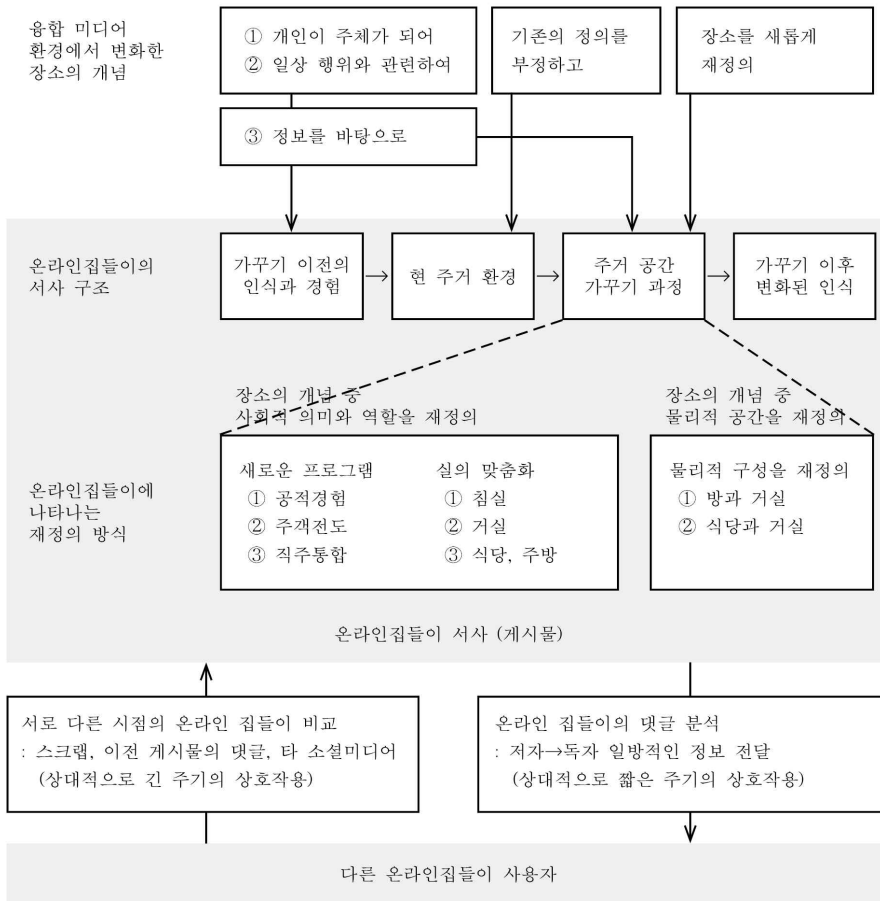
3. 온라인집들이의 장소 재정의 서사가 담긴 게시물은 댓글, 스क्र랩, 공유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한다. 이때 주거는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지식의 형태로 정보를 공유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들을 분석하기 위해 ①온라인집들이 게시물에 작성된 댓글을 분석하고, ②같은 저자에 의해 서로 다른 시점에 쓰인 온라인집들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① 댓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은 그 내용에 따라 독자의 감상, 정보요구, 조언과 저자의 답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언은 극히 일부(1%)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독자의 정보요구와 저자의 답글(55%)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온라인집들이에서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은 저자에서 독자로의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저자의 입장에서 온라인집들을 통해 받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저자에 의해 서로 다른 시점에 쓰인 온라인집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저자는 이후 온라인집들이에서 이전 온라인집들이에서 받은 댓글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집들이 본문을 통해 하기는 했

지만, 댓글의 조언이 적은 만큼 댓글로부터 받은 영향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다른 사용자의 온라인집들이를 스크랩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온라인집들을 작성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타 소셜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 온라인집들이에서는 구매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를 진행한 반면, 이후 온라인집들이에서는 사용하면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변화한 지식의 개념인 개인적 지식의 형태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제공,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사진, 텍스트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데이터는 아니다. 하지만 무질서해보이는 데이터를 관통하는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거를 대하는 거주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표본이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대변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주거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두 시점에 작성된 게시물 6개를 통해 온라인집들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온라인집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상호작용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23〉 온라인집들이에 나타난 장소 재정의의 과정

## 제 8장. 참고문헌

### <국내 논문>

- 강보라, 일상과 미디어, 그리고 개인적 지식의 구성 : 먹거리에 관한 2-30대 여성들의 개인적 지식 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5
- 강재원, 융합미디어와 사적私的) · 공적公的) 영역의 변형: 새로운 중간영역의 부상(浮上)과 그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IT 서비스 학회지, 2013
- 강진수, 블로그와 트위터 이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출판에 대한 연구 - 피에르 레비(Pierre Levy)의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1
- 권현아, 한국 도시주거의 상품화와 일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 김동우, 아파트 주동 및 단위세대 변화와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초반 광주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2016
- 김수정, 공공아파트의 공간구성과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이후 주택공사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6
- 김정숙, 현대건축에 나타난 일상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12
- 김혜숙, 신문·잡지를 통해 본 아파트 생활기사의 주거담론적 특성과 변천,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13
- 남기범, 앤서니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시공간론,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국토연구원, 2005
- 노명우, 네트워크 미디어 시대의 ‘대중 지식인’ 과 지적 대중의 결합체, 2012
- 류룡학, 민간분양아파트 평면의 실별 평면계획요소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1976년부터~2012년까지 H사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2013

- 마동훈,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생산 패러다임, 한국언론학회, 2011
- 문학조, 임대아파트 단위세대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 양천구 SH공사 아파트와 Sanit Paul PHA 아파트의 비교, 2007를 바탕으로 재구성
- 변나향, 아파트단지와 단위세대 평면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유전적 속성, 2014
- 손세관,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0
- 손지혜, 국내 아파트 실내공간 변화 연구 - 최근 아파트 평면을 중심으로, 2008
- 엄명준,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현대건축의 표현경향,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96
- 오진환,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 1990
- 원용진, 매체와 지식세계, 문화과학 48호, 2009
- 윤승은, 정보통신용어사전, 일진사, 1994
- 이경원, 공(公), 사(私), 공(共) 패러다임,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8
- 이동후, 인터넷의 공간과 시간 : 미디어 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2006
- 이상룡, 현대건축에서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1
- 이종각, 1990년 이후 아파트 단위평면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2006
- 최병두, 지식정보시대와 공간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하원규 외,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융합, 유비쿼터스 IT혁명과 제3공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해외 단행본>

- Newmark N, 김태연 역(1999), 인간, 공간, 주거, 수학사, 1977
- Rapoport A, 이규목 역(1995), 주거의 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 레브 마노비치, 서정신 역 (2004), 뉴미디어의 언어, 생각의 나무, 2002
- 마뉴엘 카스텔, 박행웅 역(2004), 인터넷 갤럭시, 한울아카데미, 2001
- 마샬 맥루한, 박정규 역 (1999), 미디어의 이해, 1994
-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 역(2007),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9
- 앤서니 기든스, 권기돈 역(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1
-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2018), 장소감의 상실, 커뮤니케이션 북스, 1986
- 피에르 레비, 권수경 역(2002), 집단지성, 1997



---

ABSTRACT

## Study on the Process of Redefining Place Described in Social Media

- Focused on the Appropriation Case of Apartment Space  
that Appeared in 'Online-housewarming' -

Hur, EunSeok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This study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sharing the information about private housing and opinions with the public through the social media.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online housewarming' of 'O, House' among social media. I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hows the concrete thoughts and usage of residents, including all the space of the residence. This study defined the place as social meaning and role given to physical space, based on previous research. A study on the appropriation case of apartment space in online-housewarming was conducted as a redefining process of the place in the residence. We set up research problems on the assumption that the human's attitude toward architecture in social media is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media.

Firs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process of redefining the place within the residence, described in the online housewives, is based on the changed concept of place in the convergence media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online housewives. In a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an individual becomes a subject and redefines the definition of an existing place based on information in relation to daily activities. Each element of the narrative of the online-housewarming corresponds to the changed concept of place in the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Secon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redefinition of the place is over the whole concept of the place, which is 'social meaning and role given to physical space'. The method of redefining can be classified by new programs, customization of rooms, intersecting and integrating. In this point, each redefines the role of the housing, the meaning of the space, and the physical arrangement,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all elements defining the place are subject to redefinition.

By redefining housing with a new program, it denies social role of existing housing. People can eliminate the public and private hierarchy of housing by attracting public experience and public attention to the inside of the house, can plan a residence with preference to certain objects rather than residents, and can redefine the main function of the residence as production. Through the customization of the room, People denies the meaning of the existing residential space and redefines each space according to its lifestyle. On the other hand, it denies the physical arrangement of the residence and redefines a new place. Deny the definition given in each space and redefine it to fit the space of size and shape

that you think is appropriate.

Posts containing online-housewarming interact with other users through a variety of ways, including comments, scraps, and sharing. The comments could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reader's opinion, information request, advice and author's reply. As a result, only a small advice was found, and most of them were the information requests of the readers and the replies of the authors. In the online-housewarming, the interaction through the comments was confirmed to be one-sided information transfer from the author to the reader. On the other hand, the author answers the comments received from the first online-housewarming in the second online-housewarming. As the advice of the comment was few, the influence received from the comment was small. Instead, we were able to identify cases where online-housewarming were influenced by scrapping others posts, and other social media like instagram.

This study utilized information collected and provided voluntarily through the social media. Information provided voluntarily is not organized data, since it consists of various types of photographs and texts. But, by identifying the tendency of data that seems to be chaotic, we can identify the attitudes of residents on the macroscopic level. Also, because the sample of research is a specific class or group, it can not be said to represent society as a whole.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it reflects the new tendenc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ce and human in the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Keywords : Social Media, Convergence, Apartment, Place,  
Appopriation, Space Usage**

**Student Number : 2017-29868**